



행복도시 기본계획 10년만에 손 본다

국토부-행복청, 5·6생활권 기능 재설정 공청회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기획처(이하 행복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20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행복도시기본계획은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난 2006년 7월 수립됐다.

이번에 행복도시기본계획을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난 2010년 행복도시 수장안 발표에 따른 건설추진 지연,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등 행복도시를 둘러싼 외부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아직 계획이 확정되

지 않은 잔여 용지인 5·6생활권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변경 가능한 사항 위주로 미세조정을 추진하게 됐다.

국토부는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먼저 현재 6-1생활권 내 첨단산업 업무용지를 5생활권으로 조

정 검토한다.

6-1생활권에 계획된 첨단산업 업무용지는 행복도시 출범 전에 있었던 월산산업단지 임지를 단순히 반영해 지정한 결과, 예상치 못한 도로의 지·정체가 유발되고 4-2생활권에 임지할 세종테크밸리, 명학산단, 오송·오창 등 인근 산업단지와의 연계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접근성, 기존 산단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1생활권에 임지한 첨단산업용지를 5생활권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5생활권 및 6생활권 기능 재설정 및 구체화를 검토한다.

6생활권 첨단산업 업무용지를 5생활권으로 이전할 경우 현행 5생활권(의료·복지)과 6생활권(첨단지식기반)의 기능을 상호 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공청회에서는 5생활권을 첨단산업단지와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 도시로 계획하는 등 '바이오·에너지 특화생활권'으로 조성하고 6생활권을 대학병원 정도의 고차의료시설을 유지하고 자연 휴양·여가시설 등과 연계한 의료·복지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기능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단계적 개발계획의 재검토를 추진한다.

공청회에서는 행복도시 수장안 논란 등으로 건설사업 추진이 약 2년간 지연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단계별 개발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도시가 누구나 '한번 와보고 싶고, 살고 싶은' 품격 있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와 주민들께서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은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반영해 행복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한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경에 수정된 최종 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정복기자



대전 유성구 원신동 자원봉사회 일일바자회 성료 대전 유성구 원신동 자원봉사회(회장 이은숙)는 19일 상대동 카페에서 일일바자회를 개최하고 커피, 차, 국수 등을 판매했다. 이번 행사는 자원봉사 활동 기금 조성을 위한 것으로 이은숙 회장은 "이번 행사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등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I 발생농장 500m내 가금류 살처분

농식품부, 심각단계 강력조치...기동방역타격대 등 운영

AI 방역에 총력 대응하고 있는 농식품부는 AI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데 따른 추가 방역 및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긴급행동지침(SOP)보다 강력한 살처분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동방역타격대 등 운영한다고 밝혔다.

AI 기동방역타격대는 지난 17일부터 이를 통한 4팀 143명을 세종, 안성, 여주, 천안에 투입했으며 살처분에 동원 가능한 민간 전문 인력을 확보, 향후 필요한 살처분 현장에 투입하기로 하고 군부대에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신속한 살처분 AI 발생시 500m내 관리지역의 농장의 가금류와 대해 원칙적으로 살처분·폐기하고

500m~3km 보호지역 내에서 AI 발생 우려가 있는 농장의 가금류와 이에 대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예방적 살처분·폐기하고 농가 중 AI 감염을 우려하는 농가에서 스스로 조기 출하, 수매, 도태를 희망시 적극 수용해 조치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산란용 닭 살처분과 이동제한으로 인한 계란 수급 안정 대책으로 번식용 닭인 산란종계뿐 아니라 알을 낳는 산란실용계도 수입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항공운송비 지원 등을 통해 계란 수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긴급할당관세 적용 및 검사기간 단축 등도 추진한다.

한편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서 살처분 현장인력에 대한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 현장팀을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야생새에서 고병원성 H5N8형 AI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서는 19일 가축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가 방역 방안 논의 및 추진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AI의 확산을 차단하고 조기 종식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현장방역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주요 개선과제를 선정해 중장기 대책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지자체의 가축방역 기능(조직·인력) 확충을 통한 현장중심의 방역체계 강화와 함께 농가의 축산시설 현대화 등 사육환경 정비, 축산업 허가제 관리강화, 살처분 보상금제도 개선 등을 통해 농가 및 계열사 자율방역시스템 강화하는 한편 동절기 적용 소독제 기술개발, AI 신속진단기술 개발 및 드론 활용방역실태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환 기자

“일 잘하는 충남, 지속가능 발전 발판 마련”

안희정 지사 송년 기자회견... 도정 회고·내년 방향 제시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19일 송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한 해 충남도는 일 잘하는 지방정부로 환경해 시대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로 만들어 왔고, 지역을 넘어 세계로, 대한민국 선도 충남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송년 기자회견을 통해 안 지사는 올해 도정 전반에 대해 회고하고, 내년 도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안 지사는 우선 충남 서부 가뭄과 구제역,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등 올해 겪은 ‘도전’은 ‘도민들의 단결된 힘으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진행 중인 쌀값 폭락과 AI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도민들의 근심을 덜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또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충남 경제는 건실하게 운영돼 왔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수소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 기반 산업이 정부 예산을 통과하고, 융·복합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허브 구축 사업이 산자부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경제 신성장동력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뿐만 아니라 충남도가 지자체 중 유일하게 6년 연속 공약이행 평가 최우수 등급 달성, 대한민국 지식대상 4년 연속 수상, 정령도 최상위 등 일 잘하는 지방정부의 대명사가 됐다고 평가했다.

환황해 시대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만들어 오고, 민선5기부터 중점 추진해 온 3농혁신은 결실을 맺고 있다고 말했다.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계획을 수립해 시범사업 추진에 나서게 됐으며, 가로림만권역은 조력발전소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지속가능 발전 전략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3농혁신은 충남 농산물에 대한 광역유통망을 확보, 대형마트 442억 원, 농사랑 101억 원 등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안 지사는 여기에 더해 대산-당진 고속도로 예타 통과, 장항선 복선전철 및 아산-석문 단선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서산민항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반영, 한·중 국제여객선 취항 합의 등으로 충남이 사동팔팔 환황해권 교통 중심지로 거듭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안전한 충남, 인권이 숨 쉬는 충남의 기틀은 119구급차 현장 도착 시간 획기적 단축, 마더헬

기 도입, 충남 양성평등비전 2030 수립, 인권센터 설치 등을 통해 마련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제2회 환황해 포럼 개최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하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지방정부로 발돋움하고,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성공 개최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추진 등도 성과로 꼽았다.

안 지사는 올해 특히 법제화가 필요한 9개 과제를 선정해 20대 국회에 제안하는 ‘충남의 제안’을 발표했다. 또 구청원의 역량을 결집해 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예산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어 “앞따르는 자연재난과 국정 혼란으로 도민 여러분의 우려가 크고, 국내·외 경제 상황마저 어렵다”며, 내년 도정 3대 핵심 과제로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 △경제위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지역 현안 국가 정책화와 안정적인 도정 운영을 제시했다.

안 지사는 “지역과 국가의 공동 발전을 위해 제안해 온 과제들의 입법·정책화에 박차를 가하고, 불안정한 정치·사회적 상황 속에서도 누수 없는 도정을 운영해 나아가고, 내년 도정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정한 기자

한밭대학교 미래산업융합대학
2017 신입생 모집

신소재융합공학부
에너지융합공학부
과산융합공학부
융합지식융합대학
스마트융합공학부

1월 10일 전 모집 마감 (1월 10일 17:00) (1월 10일 17:00)

1월 10일 전 모집 마감 (1월 10일 17:00) (1월 10일 17:00)

1월 10일 전 모집 마감 (1월 10일 17:00) (1월 10일 17:00)

1월 10일 전 모집 마감 (1월 10일 17:00) (1월 10일 17:00)

1월 10일 전 모집 마감 (1월 10일 17:00) (1월 10일 17:00)

세계를 향한
꿈 100년
미래를 향한
도전 90년

개교 90주년

민주당 지지율 37.7% 역대 최고

<리얼미터> 대구경북(TK)에서도 새누리당 누르고 1위 차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2월 2주차(12-16일) 정당지지도 조사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18대 대선 직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대구경북(TK)에서도 새누리당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

매일경제 '레이더'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1.8%p 오른 37.7%로 2주 연속 상승하며 민주당통합당의 18대 대선 직후 2012년 12월 3주차(41.0%) 지지율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30%대 중후반으로 올라섰다.

원내대표 선출 보도 증가로 주중후반에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였던 새누리당은 0.1%p 내린 17.2%를 기록했다. 국민의당은 호남과 보수 성향의 지지층 일부가 이탈하며 0.1%p 내린 12.2%로 지난 11월 4주차(17.2%) 이후 3주 연속 하락하며 약세가 이어졌다. '국민의당 · 새누리당 비박계 연대실'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12·9 탄핵' 후 진보층을 중심으로 결집했으나 민주당의 강세가 이어지며 0.2%p 소폭 오른 5.5%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부산경남(PK)과 TK, 40대, 진보층에서는 상승한 반면, 충청권과 호남, 30대, 중도층에서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기타 정당이 0.7%p 오른 5.8%,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은 2.5%p

감소한 21.6%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16일(금)에는 39.6%까지 상승하며 40%에 근접했고, 주간집계로는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울산), 경기·인천, 20대와 50대, 진보층과 보수층 등 모든 이념성향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일제히 상승했는데, 특히 TK(민 28.1%, 與 27.0%)를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선두로 나섰고, 호남(민 40.4%, 與 25.5%)에서는 40% 선을 넘어서며 국민의당을 해당지역 오차범위(±6.3%p) 밖에서 제치고 16주 연속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12·9 탄핵 가결' 후 제과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13일(화)에는 15.6%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3일 연속 상승하며 0.1%p 내린 12.2%로 지난 11월 4주차(17.2%) 이후 3주 연속 하락하며 약세가 이어졌다. '국민의당 · 새누리당 비박계 연대실'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12·9 탄핵' 후 진보층을 중심으로 결집했으나 민주당의 강세가 이어지며 0.2%p 소폭 오른 5.5%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부산경남(PK)과 TK, 40대, 진보층에서는 상승한 반면, 충청권과 호남, 30대, 중도층에서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기타 정당이 0.7%p 오른 5.8%,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은 2.5%p

위(±6.3%p) 밖에서 뒤져 16주 연속 2위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일간으로 '12·9 탄핵' 주말을 경과한 12일(월)에는 지난주 대비 1.4%p 오른 37.3%로 5일(월), 35.2%과 6일(화), 36.9%에 경신했던 당명 교체 후 일간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고, 야3당 대표 회동에서 '조속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촉구했던 13일(화)에는 36.6%로 내렸다가, 국정교과서·사드배치 등 황교안 권한대행의 '박 대통령 정책'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던 14일(수)에는 37.1%로 상승한 후, 황교안 대통령의 '정당법 대표 회동 제안'을 거부했던 15일(목)에는 36.5%로 다시 하락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유 없음' 현재 답변서에 강력 반발했던 16일(금)에는 39.6%로 40%에 근접하며, 최종 집계는 지난주 대비 1.8%p 상승한 37.7%로 마감됐다.

새누리당은 일간으로 친박계가 '혁신과통합연합'을 발족하기로 한 소식이 있었던 지난주 주말을 경과하며, 비박계의 '친박 8인 탈당 요구'가 있었던 12일(월)에는 지난주 대비 0.6%p 오른 17.9%로 출발해, 친박계의 '혁신과통합보수연합'이 공식 출범하고 '윤리위 친박계 필수 증원' 논란이 벌어졌던 13일(화)에는 15.6%로 내렸다가, 원내대표 선출 관련 보도가 이어졌던 14일(수)에는 16.2%로 소폭 올랐고, 다음 날 15일(목)에도

16.9%로 상승한 데 이어, 신임 원내대표에 정우택 의원이 선출되고 이정현 지도부가 사퇴했던 16일(금)에도 18.9%로 올랐으나, 최종 주간집계는 지난주 대비 0.1%p 내린 17.2%로 마감됐다.

국민의당은 김동철 비대위원장이 '개헌 논의 착수'를 제안했던 12일(월)에는 지난주 대비 0.2%p 내린 12.1%로 시작해, 야3당 대표 회동에서 '조속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촉구했던 13일(화)에는 13.1%로 올랐다가, 호남 중진의원 중심의 '개헌 추진' 주장이 있었던 14일(수)에는 12.0%로 다시 하락했고, 김동철 비대위원장이 '국민의당 · 새누리당 비박계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던 15일(목)에도 12.2%로 약세가 지속된 데 이어, 김 위원장이 개헌에 대한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을 비판하며 개헌 논의 참여를 촉구했던 16일(금)에도 11.9%로 하락하며, 최종 주간 집계는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0.1%p 내린 12.2%로 마감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16일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28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면접(19%), 스마트폰앱(40%), 무선(26%)·유선(15%) 자동응답 혼용 방식에 조사했고, 응답률은 전체 9.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이다. 일간집 표본오차는 5일간 모두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김정환기자



황 권한대행 "SI 차단 지자체 가용인력 동원" 황교안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SI 방역은 즉각적이고 사전적으로 꼼꼼하게 대처해야 하며 과감한 광역의 방역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농업을 비롯한 유관기관 직원 등 모든 가용인력을 동원해 농가와 함께 SI 차단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경기도 이천의 SI 거점소독시설을 방문, 지자체의 SI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상황을 점검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경기도 지역이 SI 확산으로 인한 살처분 기금류 수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SI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지자체의 철저한 방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 학생연구원 연구실사고 보상확대 정책토론회

학생연구원 치우 개선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현행 이공계 연구실사고 보상을 산재보상 수준으로 확대하고, 향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통해 학생연구원 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학생연구원 연구실사고 보상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신 의원이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과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주관한다. 신 의원은 지난 5월 국민의당 원내

대재회의와 10월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연구실안전법상 연구활동중사자 보험 보상기준을 현행에 비해 학생연구원 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신 의원은 "과학기술 연구현장은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안전한 연구환경조성은 물론이고, 연구실 사고에 대한 충분한 체계적인 보상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토론회에서는 송해숙 교수(광주여자대학교 보건행정학과)가 '학생연구원 보상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어 박지순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를 좌장으로, 강호연 팀장(미래부 연구환경안전

팀), 이병호 단장(교육시설재난공제회 실험실 안전지원단), 정창룡 교수(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손병권 팀장(서울대학교 환경안전원), 최준규 보좌관(국회 신용현 의원실)이 패널로 참여해 학생연구원 치우 개선을 위한 심도 깊은 토론을 펼쳤다.

신 의원은 "과학기술 연구현장은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안전한 연구환경조성은 물론이고, 연구실 사고에 대한 충분한 체계적인 보상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연구실안전법과 산재보상법 개정을 통해 학생연구원 치우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예산군의회, 2017년도 본예산 4821억 원 확정

제2차 정례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177건, 조례안 15건 가결



예산군의회는 지난달 25일 개최한 제227회 제2차 정례회가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7년도

경정예산안은 원안 의결했다. 또한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15건의 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에 처리된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처리요구 사항 130건, 시정요구 사항 23건, 건의요구사항 24건 등 총 177건이었으며 지난 11월 28일부터 지난 12월 6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권국상 의장은 "군의회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군민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정유년 새해에는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보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양성업기자

누리봉사단, 유성 성세재활원서 사랑나눔 실천



새누리당 대전광역시당위원장(이은권) 누리봉사단(단장 김광래)은 19일 유성구 용계동 장애자종합복지관인 성세재활원을 찾아, 탕수육 등 간식 만들기과 배식 및 식사봉사 활동을 벌였다.

지난 2013년 5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출발한 누리봉사단의 봉사활동은 이날 성세재활원에서

성세재활원에서의 사랑나눔은 봉사단원들이 미리 준비한 패지 고기와 양념으로 중국식 요리인 탕수육 100인분을 만들어 장애자들에게 간식으로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자들에게는 식사봉사도 함께 했다.

이와 함께 봉사단원들은 중증장애자들을 위해 밧벙이 패주거나 책 읽어주기에 나서는 등 연말 연시를 맞아 이웃의 따뜻한 정을 나누어주기도 했다.

이번 봉사단원을 이끈 김광래 단장은 "낯은 낯과 소외된 이웃을 위해 묵묵히 참여하신 봉사단원들의 헌신으로 누리봉사단이 55번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어왔다"며 "드러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쌓아온 우리들의 헌신과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하며, 그러면 많은 이웃들이 우리들의 사랑나눔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구분환 의원, 지역 생활체육 발전에 앞장 감사패 수상



대전시 유성구의회 구분환의원(행정자치위원장)이 17일 송강동 배드민턴클럽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송강배드민턴클럽 회원들은 "구분환 의원은 평소 지역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 왔으며 특히, 송강배드민턴클럽 발전에 남다른 애착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린다"고 그 뜻을 밝혔다.

구분환 의원은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한 유성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생활체육 동호인 여러분들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김정환기자

충남도의회 서형달 의원, 대한민국 문화교육대상 수상

문화교육 관련 사업 부문에 공로 커...개인분야 부문상



충남도의회 서형달 의원(서천 1·사진)이 '2016년 대한민국 문화교육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사)한국문화교육협회는 18일 서울 추계예술대학교에서 문화교육 관련 사업 부문에 공로가 큰 서

형달 의원을 선정, 개인분야 부문상을 시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실제 서 의원은 제9대 의회에서 이어 제10대 의회에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정책 제안과 충남교육의 미래상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 활동 등 유아교육 환경 개선과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 지원을 통한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했다. 또한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부위 외면에 따른 도민 월세 낭비 방지를 촉구하는 등 교육 정상화 활동 및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힘썼다.

아울러 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등 12건을 발의했고, 12차례에 걸친 5분 발언을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아낌없이 주어도 모자란 것이 교육"이라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도정 및 교육행정 견제·감시를 넘어 정책 제시를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정복기자

문체부, 특별감사팀 꾸려 의혹 사업 감사 확대

특별감사팀 중심의 집중감사체제 전환해 본격적인 감사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의혹이 제기된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문체부는 19일 최순실·차은택 등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기존의 '문체사업 점검·검증 특별전담팀(문체사업 점검 특별전담팀)' 중심의 사업 점검 체제를 특별감사팀 중심의 집중감사 체제로 전환해 본격적인 감사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정관주제서관을 팀장으로 문제사업 점검 특별전담팀(TF)을 구성·가동해 최순실·차은택 등 문제 인사들의 관여 의혹이 제기

된 19개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사실관계 및 내·외부 관계자 확인, 법령·규정·업무관행 위반사항 등을 집중 점검했다.

문제사업 점검 특별전담팀은 중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대한승마협회 등과 관련된 총 4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우선 실시했으며 문화장 조융합벨트 구축 등 의혹제기 사업의 2017년 정부예산안 감축(1748억 원 삭감) 및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취했다.

문체부는 감사인력 부족으로 문제사업 규명이 지연되고 있다 지적에 따라 감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대폭 확충, 19명

부터 주요 의혹사업을 정밀 감사할 예정이다.

대상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해외문화홍보원, 문화장 조융합본부, 기타 관련단체 등이며, 감사대상은 문화장 조융합벨트 등 주요 문제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우선 순위를 정해 실시한다.

문체부는 감사를 통해 의혹사업의 추진 배경과 과정을 밝히고 당초의 사업 목적 외로 보조금을 유용하는 등 보조사업의 교부 조건이나 기타 법령 등을 위반한 내역이 있다면 보조금 환수, 민사상 가압류, 형사 고발 조치하고, 필요시 관련 자료를 특검에도 제공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선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문로 26-20 대정빌딩 7층
www.daejeontoday.com

원하는 시기 학업의 기회 지원... 제4차산업혁명 이끌 인재 양성

한밭대학교 미래산업융합대학

한밭대학교(총장 송하영)가 대전·충청·세종권역에서 유일하게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돼 2017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들어갔다.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은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고등교육을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을 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로, 성인의 다양한 대학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대학 교육시스템 개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밭대는 선취업 후진학·성인학습 수요를 전담하는 '미래산업융합' 단과대학을 설치, 스마트제조기술응용공학과, 에너지ICT공학과, 자산관리학과, 창업지식재산학과, 스포츠건강과학과 등 5개 학과·기업에서 요구하는 1개 계약학과를 신설한다. 신설되는 학과의 입학생은 2017학년도 총 166명을 2016년 9월부터 수시전형을 통해 선발하고 학습자 편의를 위해 주말기숙형 학사운영, 1/2학기 이수 인정 프로그램 등 성인학습자 친화적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전평생교육진흥원과 협력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대전 중앙로에 위치한 교육장 내에 개설, 학습자의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성인교육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편집자 주>



◇ 한밭대, 충청권서 유일하게 평생교육단과대 지원사업 선정
국립 한밭대학교(총장 송하영)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실시하는 '2016년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에 대전·충청·세종 권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최대 3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은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고등교육을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을 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어 성인의 다양한 대학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대학 교육시스템 개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밭대학교는 선취업 후진학 및 성인학습 수요를 전담하는 "미래산업융합대학이하 미래대학"을 설치해 스마트제조응용공학과, 에너지ICT공학과, 자산관리학과, 창업지식재산학과, 스포츠건강과학과 등 5개 학과를 신설했다.
신설되는 학과의 입학생은 2016년 9월 수시모

집과 2016년 12월 31일 ~ 2017년 1월 4일까지 정시모집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미래대학은 수능이 아닌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선발(1차: 서류전형 100%/2차: 서류전형50%+면접전형50%)한다. 미래대학은 재직자를 위한 맞춤형 수업 운영 및 학사제도가 큰 장점이다.
특히 학습자 편의를 위해 야간, 주말(토요일) 및 온라인 강의 개설, 휴가기간(동계,하계)을 이용한 집중학기제, 중간고사 이전까지의 1/2학기 이수 인정제, 사회수요형 선이수시스템 등 성인학습자 친화적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평생학습계좌제,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다양한 곳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현장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을 구성 하여 실무중심의 교육을 하며, 미래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취득이나 재취업 기회도 제공한다. 접수 방법은 진학어플라이 원서 접수(<http://www.jinhkapply.com>)에서 가능하다.



◇ 미래산업융합대학의 비전과 목표

후진학자와 평생학습자가 산업의 수요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언제·어디서나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평생학습 사회를 실현하기위해 설립됐다.

미래 산업 융합대학에는 스마트제조응용공학과, 에너지ICT공학과, 자산관리학과, 창업지식재산학과, 스포츠건강과학과를 개설했다.

미래대학의 학사운영 특징은 실무중심 교육을 통해 졸업 후 미래산업트렌드에 맞춘 자기주도 평생직업을 갖게해 준다는 점이다.업계 경험 풍부한 현장교수진 구성, 현장 실무내용 중심의 교육 진행과 미래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자격증 취득 및 재취업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이 중심이 되어 중간고사 이전까지 1/2 학업이 수 인정제도와 휴가기간 활용(하계/동계) 집중학기제도 운영된다.

또한 미래대학은 다양한 수업방식을 통해 학생들의 출석부담을 줄일 수 있다.평생 교양과목의 온라인 수업 위주 개설로 학습 참여시간 절감과 야간 및 토요일 수업 개설로 학습자의 출석 참여 부담을 완화시켜준다.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곳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점도 미래대학의 특징이다. 평생학습계좌제, 학점은행제가 운영되고, 타기관 등에서 이수한 평생 교양과정에 대한 개방형 학점이 인정되고,기존 타 온라인, 타대학 학습 기반 학점에 대한 이수가 인정된다. 그리고 입학전 타 기관에서 이수한 이수 학점 인정(사회수용형 선이수시스템 도입)과 졸업 최저 요건 학점을 130학점으로 경감한다.
미래 대학 모집학과는 ▲스마트제조응용공학과 ▲에너지ICT공학과 ▲자산관리학과 ▲창업지식재산학과 ▲스포츠건강과학과로 모집인원은 총 112명이다.

◇ 학과 소개

▲스마트제조응용공학과=기계시스템 디자인, 자동화제어, 컴퓨터통신, 생산제조공학 분야에 관한 현장실무 중심의 새로운 융합 교육으로 미래 스마트제조응용공학 전문가를 양성한다.

졸업 후 스마트제조기술 지식과 융합 능력의 자기주도 평생학습 엔지니어스마트공장실무 엔지니어, 기술 컨설턴트, 3D프린팅 기반 제품 및 금형 실무 엔지니어, 3D프린팅 기반 기술교육 전문가, 스마트제조기술 분야 창업가 진출이 가능하다.

▲에너지ICT공학과=고전적인 전기에너지의 생성, 분배, 소비에 관련된 지식과 최신 ICT 기술을 교육하여 현대의 고도화된 산업시대에 요구되는 실무가 겸비된 창의적인 전문엔지니어를 양성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한다. 졸업 후 에너지에 관련된 전반적인 이론 및 관련 실용기술을 습득한 전문 엔지니어, 효율적인 학업과 근로 병행시스템을 통해 현장해결 능력을 갖춘 실무형 엔지니어, 에너지와 ICT분야 실무가 겸비된 창의적 엔지니어 등이 가능하다.

▲자산관리학과= 급변하는 금융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평생학습자를 대상으로 금융 및 비금융 자산(부동산)의 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종합적인 자산관리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졸업후 개인 자산관리투자, 보험, 상속, 은퇴(연금), 세금, 부동산 등의 전문가, 기업 자산관리(투자, 외환, 세무, 회계, 부동산, 자산평가, 유동성 관리 등의 전문가, 종합재무설계사(AFPK), 자산관리사(AP),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부동산경매사 등의 다양한 공인자격증을 갖춘 자산관리 전문가 진출이 가능하다.

▲창업지식재산학과=자기주도 평생직업창출 시대, 자신의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우량한 사업 기회를 포착 실행할 수 있는 미래산업융합시대 비즈니스리더를 양성한다

졸업후 지식재산기술 및 특허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일으키고 완성할 수 있는 실천 실행역량을 갖춘 창업가, 우량 중소 중견기술벤처기업의 CTO 등 임원, 창업기업을 도와주는 창업전문가 및 컨설턴트 등의 진출이 용이하다.

▲스포츠건강과학과=스포츠와 건강과학의 다양한 학문 분야를 학습하게 되며,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스포츠건강과학 분야의 선도적이고 체계적인 이론교육, 전문실기교육과 다양한 스포츠분야의 산학협력 시스템을 통한 현장밀착형 교육으로 '100세 시대'를 선도해 가는 우수한 스포츠 지도자를 양성하고 궁극적으로는 평생체육인을 육성하고자 한다. 졸업 후 교양과 전공의 조화로운 학습을 통해 바람직한 인성과 가치관을 갖춘 전인적 스포츠 지도자, 다양하고 새로운 건강과학 분야의 학습을 통한 체계적 능력을 갖춘 건강관리 전문가가 진출이 용이하다.

이정복 기자

Mission for Human

현대파워텍의 변속기 기술은 인간을 위해 헌신합니다

자동차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을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변속기 역시 그 목표를 위해 헌신하여 합니다.

현대파워텍의 변속기가 탑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동차의 안전과 통행에 대한 신뢰를 받고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느끼는 행복한 자동차 생활을 향유하는 것

그것이 현대파워텍의 인간을 위한 기술입니다.

P

R

N

D

● 특 정 ●

사랑의 열매 전달받아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20일 오후 2시 시 교육청 접견실에서 대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안기회 회장으로부터 「2016 사회적 배려대상학생 돕기 지원금(사랑의 열매)」을 전달받는다.

대학입시정보 박람회 개막식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20일 오전 10시 대전시청 2층 로비에서 열리는 2017 대학입시정보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 오전 11시 유성호텔에서 열리는 시내버스 친절운전자 및 모범업체 시상식에 참석.

구청장협의회 오찬간담회



박용강 구구청장=20일 정오 공원식당에서 개최되는 '대전광역시 구청장협의회 오찬간담회'에 참석.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진행



장종태 서구청장=20일 오전 10시 30분 구청 2층 로비에서 기적의 새책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진행.

사회적경제 성과보고회



허태정 유성구청장=20일 오후 5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사회적경제 성과보고회 및 워크숍에 참석.

자율방범대원 표창장 수여식



박수범 대덕구청장=20일 오후 2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모범 자율방범대원 표창장 수여식에 참석.

성남동 순환형 임대주택 시, 12월 입주자가 추가 모집

대전시(시장 권선택)가 도시재생사업 철거제입지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건립한 '성남동 순환형 임대주택'에 대하여 12월 추가 입주를 추진한다.

'성남동 순환형 임대주택'은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2,417㎡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9층, 1개동 99세대로 건립, 대전도시공사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금번 추가모집은 55세대(공급 21㎡형 51, 22㎡형 4)이다.

1순위 철거세입자 입주자모집 공고는 시와 자치구, 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월 26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자치구 도시과에서 입주대상자 신청 접수를 받고, 1순위 모집 완료 후 잔여세대 발생 시 2순위 모집공고 계획이다.

시 임목 도시재생본부장은 "성남동 순환형 임대주택건립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철거되는 지역의 거주민과 저소득층 주민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덕특구-대전 상생협력 발전협의회 개최

“지속가능한 과학도시로 발전”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19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대덕특구-대전 상생협력 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 홍보업무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으며 ▲ 내년도 변화되는 주요시정 및 주요행사 안내 ▲ 카

이스트고 '과학문화 콘텐츠' 조성 안내 ▲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선정 협조 ▲ 대덕특구-대전 상생협력 분과위원회 발족 신규사업 운영방안 논의 ▲ 2017년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부주제 의견수렴 등 대전시와 특구 간에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현안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운영하게 된 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책과제 중 대전시가 2017년 추진 예정인 과학나눔터 운영과 시민참여형 지역사회문제해결 협력사업의 프로그램, 시범과제 등에 대한 의견 수렴도 함께 진행됐다. 또 지난 10월 22일부터 25일까

지 4일간 144개 기관·단체 참여, 187개의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17만 명의 시민이 관람하는 등 명실상부한 지역의 대표 과학축제로 자리매김한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의 2017년 부주제(주제관 설치)에 대한 출연(연) 등 관계자들 의견도 함께 듣는 시간을 가졌다.

시 송치영 과학경제국장은 "시는 대덕특구와의 상생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과학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2015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대덕특구-대전 상생협력 발전협의회'를 매개체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해 시정에 반영하는 등 특구와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호 기자

市, 지역 4개기업 신규투자 업무 협약

확장이전·신증설 통한 360억 투자·129개 일자리 창출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중회의실에서 지역 내 투자를 희망하는 ㈜한나노텍, ㈜두원아이디, ㈜파나진, ㈜아이티시 등 4개의 기업과 신규투자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시와 협약참여 4개 사는 각각 지역 내 분사, 공장, 부설연구소 등의 이전 및 신·증설 신규투자를 통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4개사는 총 360억 원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인 둔곡지구와 유성지역 등에 투자 하면서 관련분야 산업발전과 함께 129개의 신규 일자리 등을 창출하기로 했으며, 시는 협약기

업들이 유망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권선택 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는 대전시에 대한 믿음, 그리고 대전에서 출발한 기업으로서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투자를 결정해 준 기업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협약을 체결한 기업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진출하는데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투자내용을 보면 ㈜한나노텍은 친환경 난연보조제 전문 기업으로 소공품 및 가공조제 생산라인 확대 및 신규제품 생산을 위하여 둔곡지구내 분사, 공장, 부설연구소 등 확장이전 투자할 계

획이다. 또 ㈜두원아이디는 치과용 의료기기(말링장비) 제조업체로 최근 매출 및 직원 수 증가에 따른 공장 협소와 치과용 의료기기 분야 생산라인 확대 등을 위하여 둔곡지구내 확장이전 투자할 계획이다.

㈜파나진은 PNA(Peptide Nucleic Acid) 소재 기반 다각화에 대비한 제조 및 연구공간 부족과 유전자 진단사업 분야 사업규모 확대를 제조 및 연구설비 확장을 위하여 기존 분사 부지내 신증설 투자 계획이다. 의료기기 및 미용기기 제조업체인 ㈜아이티시도 미용사업 분야 확장과 기술을 갖춘 인력 추가 확보를 위하여 둔곡지구 내 확장이전 투자할 계획이다.

이영호 기자

“흔들리지 않는 신뢰행정으로 국민께 믿음줘야”

박수범 구구청장 대통령 탄핵 · 권한대행 체제 공직자상 강조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19일 최근 대통령 탄핵 등으로 인한 국정 혼란 우려와 관련 "공정 최후의 보루는 공직사회"라며 "공직자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아 국민께 믿음을 주는 신뢰행정 실천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이날 오전 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주간 업무회의에서 "최근 국가적으로 다소 혼란한 사태를 겪었지만 환

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빠르게 안정 국면을 찾아가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국정 난맥상 속에서도 지방행정이 비교적 온전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가 그만큼 자리를 잡았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

러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이날 오전 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주간 업무회의에서 "최근 국가적으로 다소 혼란한 사태를 겪었지만 환

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말·연시에는 무엇보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종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 준비는 물론 중무식과 시무식, 햇맞이 행사 등 각종 행사가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수범 구구청장은 이날에도 A형 독감 확산에 따른 백신 수급문제 해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시)에 대한 대응 철저도 당부했다.

김태선기자

도시생명네트워크 요양보호종사자지원센터 개소식

각종 업무상 불편·애로사항 개선



대전소재 재남, 안전 및 생명 존중 관련 전문기관인 사단법인 도시생명네트워크(이사장 김종욱, 이하 '도시생명네트워크')가 19일 중구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요양보호종사자 지원센터 개소식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대전소재 요양보호 종사자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종사자 지원센터의 역할과 방향(임진석 교수, 배재대학교)', '성희롱, 성폭력 상황대처법 및 지원방안(신지영 센터장, 한국여성상담센터)', '반아웃 신드롬(김갑중 원장, 한미음정신병원)', '보행습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김동건 명예교수, 충남대학교)', '요양보호종사자를 위한 스테레칭 및

근육운동 프로그램(오진희 원장, 오진희필라테스)' 등의 주제 발표 및 강연이 이어졌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는 핵심적 사회복지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나, 요양보호종사자들의 근무환경과 처우는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각종 업무상 불편과 애로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된 바 있다.

이에 도시생명네트워크에서는 법인 내 도시생명위원회의 부실기관으로 "요양보호종사자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

및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상담 심리 및 각종 지원 사업을 전개함과 동시에 요양보호 종사자의 역량강화와 권익향상을 도모한다.

도시생명네트워크의 "요양보호종사자 지원센터"는 오류동 센트리아오피스텔에 200여㎡ 규모의 교육장 / 쉼터 / 상담실의 시설을 갖추고, 사회복지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상담 지원인력과 법률, 노무, 상담심리, 성폭력, 사회복지, 의학, 약학, 체육학 등의 유관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요양보호종사자들에 대한 종합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도시생명네트워크의 김종욱 이사장(서울시립대 책임교수)은 "금번 '요양보호종사자 지원센터'의 개소는 생명존중 분야에 있어서의 법인의 첫 번째 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도시안전과 생명존중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이뤄가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겠다는 다"며 "요양보호 종사자의 애환과 근무여건의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및 정책적 개선도 시급한 문제지만 일반 시민의 인식개선과 배려도 매우 절실한 상황으로 요양보호종사자들의 아름다운 동행이 시민·사회 전체의 많은 참여와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영호 기자

2016년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

서구 5년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대전 서구청장 장종태가 행정자치부가 평가한 2016년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5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 지방재정분석 시스템 집계실적을 기준으로 특·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6월 30일 기준 집행실적(75%), 민간집행실적(20%), 예산액 규모(5%)를 평가했으며, 행정자치부 목표액 529억 7,600만원보다 202억 1,300만원 을 초과한 73억 8,900만원을 집행해 138.16%의 적극적인 추진 실적을 거뒀다.

또한 서구는 올해 1분기 행정자치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받았고, 이번 수상으로 특별교부세 6천만 원을 받고, 대전광역시 자치구 평가에서도 1위를 달성해 특별교부금 5천만 원을 받게 됐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5년 연속 두각을 나타낸 것은 연초부터 집행률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 마련 등 강한 의지로 일군 성과"라며 "하반기에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빈틈없는 재정집행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경기 활성화, 시민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봉관 기자



새마을지도자온천2동협의회, 조미김 전달 마을운동유성구지회(회장 강전일) 산하 새마을지도자온천2동협의회(회장 김기원)는 19일 오후 2시 동주민자치센터에 50만원 상당의 조미김을 청소년 및 특세 가정을 위해 전달하며 기탁했다.



유성구, 꿈나무과학멘토 6주년 성과보고회 개최

멘토-멘티 소감 발표·공유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은 19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꿈나무과학멘토 6주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멘토기관, 멘티학생, 교사와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사업을 돌아보고 향후 추진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일방적인 사례발표 형식에서 벗어나 멘토와 멘티가 소감을 발표·공유하고, 겨울 방학을 맞아 멘티를 위해 KAIST 화학과 최인성 교수의 과학강도도 진행했다.

이 밖에 부대행사로 꿈나무과학멘토 활동 전시물(사진, 수기)을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구청 로비에 전시도 한다.

꿈나무과학멘토는 지난 2011년 대덕특구의 연구기관과 학생들을 멘토와 멘티로 연결하는 지역의 인프리를 활용한 과학대중

화사업으로 시작했다. 올해 연구기관 등 20개 기관이 멘토로 참여하고 관내 초·중·고 50개교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시설, 복지관 등 88개 기관이 멘티가 돼 10,400여명의 학생과 주민들이 꿈나무과학멘토를 함께했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과학교육을 통해 지역 과학인재 양성프로그램으로 시작한 이후, 교육과 더불어 지역 간 소통과 협력의 모델이 됐다"며, "지역의 강점인 대덕특구를 활용한 성공적인 교육사업이 되도록 올해를 돌아보고 내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기자



희망2017 나눔캠페인 중구순회서 3901만9400원 모금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안기호) 주관으로 19일 오후 2시 은행동 지하상가에서 열린 '희망2017 나눔캠페인' 중구 순회에서 3901만9400원의 성금을 모금했다.

대한민국 소비자만족도평가 대상 수상

KT&G 상상마당, 공연문화 부문 대상...높은 인지도와 공연문화기여도 인정

KT&G 상상마당이 '2016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평가 대상식'에서 공연 문화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12월 14일 서울시청 대평홀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소비자만족도평가 대상'은 KCA한국소비자평가와 대한 소비자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시상식으로,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각 산업별로 실시한 대한민국 소비자만족도평가인 KCSE(Korea Consumer Satisfaction Evaluation) 결과를 반영했다.

KT&G 상상마당은 공연 관객들로부터 높은 인지도와 함께 문화의 중심 흥대에서 대한민국 공연문화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연뿐 아니라 영화와 문화예술 교육 등 문화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인정됐다.

KT&G 상상마당은 2007년 9월에 개



관한 이래 예술인들에게는 창작 활동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공연, 영화, 전시, 교육, 사진까지 다양한 분야

의 트렌드를 제시하고 공유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11년엔 충청남도 논산, 2014년엔 강원도 춘천에 새로운 상상마당을 개관했고, 3곳의 연간 방문객은 180만 명에 달한다. 영화와 공연, 전시, 디자인, 교육사업 등 연간 2600여개의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해 대표적인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앞서, KT&G는 복합문화공간인 '상상마당'을 통해 국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11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여하는 '문화예술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 또한, 비주류 문화 육성 및 소외된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해 열린 '2015 세계대상에' 대통령 상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태선기자



에너지공단 대전충남·동절기 에너지절약 캠페인' 실시
한국에너지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천석현)는 지난 16일 대전시 둔산동 상가 밀집지역에서 동절기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진행했다.



프리지어 신기술 접목 현장 평가회 청양서 열려

청양군은 지난 16일 윤곡면 양승보 농가에서 충남 프리지어 재배농가, 관계 공무원, 화훼 연구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프리지어 신기술 접목 현장 평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오전 평가회와 오후 충남 프리지어연구회 연말총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충남 화훼연구소 최원준 연구사는 "프리지어 전조(보광)를 이용한

평가회 지원 효과는 프리지어 생육도 도움이 되고, 출하시기를 조절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충남 프리지어 연구회 양승보 부회장은 "최근 국내시장으로 화훼시장이 위축되었지만 품질향상으로 해외를 개척한다면 더 많은 소득이 기대되므로 해외시장 공략에 힘을 함께 모으자"고 강조했다.

청양=정성범기자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4개소 개통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4곳이 연달아 개통돼 고속도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20일에 26일 사이에 중부고속도로 삼성 나들목·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 나들목·영동고속도로 동내내 나들목·경부고속도로 옥산 나들목 등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4개소를 순차적으로 개통한다고 19일 밝혔다.

개통 예정인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은 적재중량 45t미만의 하이패스 차량 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간이 나들목으로서 휴게소 및 졸음쉼터를 통과해 고속도로로 진출입이 가능하다.

20일 개통하는 중부고속도로 삼성 하이패스 나들목은 음성휴게소를 통해 양방향(하남, 통영)진출입이 가능하며, 약 6km의 이동거리 단축으로 음성군 삼성면, 음성 하이텍산업단지로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개통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 하이패스 나들목은 양평휴게소를 이용해 양방향(양평, 내서)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며 약 10km의 이동거리 단축으로 양평군으로의 접근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개통하는 경부고속도로 옥산 하이패스 나들목은 서울방향 진출입로만 개통하며 부산방향 진출입로는 2017년 6월 개통될 예정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개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행 중인 사업들은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고속도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아산시보건의료 영양플러스 사업 신규대상자 모집

아산시보건의료 13일까지 '2017년도 영양플러스사업 신규대상자'를 모집한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 섭취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임신부 및 영·유아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서비스로, 대상자의 영양불균형 상태를 개선해 산모의 건강한 출산은 물론 태어날 아기의 원활한 발육과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80%미만인 가구 중 4인 가족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 115,661원(지역 127,257원) 이하이며 차량소유 시 차량가액 3,000만원 미만 인자로 아산시에 거주하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6개월 이하인 유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아산시보건의료 방문해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및 보험증권 사본 등 소득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지참해 아산시보건의료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보건의료 건강증진과(041-537-3432, 3330)로 문의하면 된다.

아산=리량주기자

끝이 보이지 않는 내수 흑한기에 中企 경영상황 "악화일로"

중기중앙회 하반기 '중소기업 현장동향조사' 결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273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하반기 중소기업 실태동향을 점검한 결과, 끝이 보이지 않는 내수침체로 인해 중소기업 경기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에 비해 최근 전반적인 경영상황이 '악화됐다'는 중소기업은 446%에 달했고, '개선됐다'고 응답한 곳은 276%에 그쳤다.

상반기에도 중소기업의 절반(47.5%)은 1년 전에 비해 경영상황이 악화됐다고 응답했는데, 이번 조사에 따르면 상반기에 비해서도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이 악화된 원인은 이미 상반기에도 '내수불황 장기화'가 압도적이었다. 이미 상반기에도 '내수불황 장기화'는 61.9%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하반기에는 70.8%까지 응답률이 치솟았다.

중소기업의 대다수(81.7%)가 이같은 경영위기 상황이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지속된 내수 침체에 따른 매출하락에서 비롯된 경영상황 악화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해석된다. 중소기업들은 경영상황 가장 큰 고민으로 39.7%가 '매출하락 지속'이라고 응답했고, '신성장동력의 미확보'가 31.3%, '이직 및 구인난 확대'가 26.5%로 뒤를 이었다.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은 '신규고객 확보 등 시장개척'(67.7%), '제품 및 서비스 고도화'(40.5%), '원가 및 비용절감'(37.2%) 등 장기적인 기업 성장과 연결될 수 있는 적극적인 경영위기 극복방식을 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더욱 엄격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상반기에 비해 대출태도가 '엄격해졌

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42.8%에 달했으나, '유연해졌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3.9%에 불과해 그 차이가 무려 38.9%나 됐다.

상반기 중소기업 현장동향 조사시, 전년 대비 금융기관의 대출태도에 대해서 '엄격해졌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40.2%였던 것과 '유연해졌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9.2%였던 것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경직성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수출 동향을 조사한 결과, 상반기에 비해 '악화됐다'는 응답이 40.2%로 높게 나타난 반면, '개선됐다'는 응답은 25.5%로 조사되어, 국내외 모든 시장에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현장방문을 통해 실태동향 조사와 함께 총84건의 현장에 로를 발굴해 대정부 건의 등을 통해 해 로를 해결할 계획이다.

송병배기자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 회원 대학 가입

순천향대, 국제 표준화 주도 대학으로서 대학 입지 강화하게 될 것

순천향대학교(서교일 총장)는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대학 회원'이 됐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국내 대학으로는 4번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공식적으로 대학 회원으로 가입됨에 따라 향후, 정보보호 국제 표준화 주도 대학으로서의 대학 입지를 강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순천향대는 전기통신연합-전기통신부문 연구반 17(정보보호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보호대책, 사물인터넷보안 기술, 스마트폰의 도난 방지 기술, 파밍 공격 대응기술 등의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ITU는 186년 설립된 유엔 산하 정보통신기술(CT) 부문 국제표준화기구이다. 주로 사물인터넷, 5세대 이동통신 등의 정보통신기술 국제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전 세계 193개 국가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이버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순천향대는 정보보호 국제표준 활동에 참여를 강화하고 대학이 보유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면 국제 표준화 분야에서 위상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지난 11월 4일 튀니지 함마메트에서 종료된 세계전기통신표준총회에서 정보보호학과 염영환 교수가 ITU-T 연구반 17의 의장으로 선출되는 등 정보보호 분야 국제 표준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ITU에는 현재 193개 국가와 700여개 기업 및 대학 회원으로 있으며 순천향대학교 대학 회원 가입은 한국의 국제대학,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희대학교에 이어 국내에서 4번째이다. 회원은 멤버 스테이트(국가), 섀터 멤버(대기업), 아카데미아 멤버(대학)로 구분되어진다.

아산=리량주기자

고유가 시대
이제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

대전대 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 대전 제2거점운영기관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재선정



대전대학교(총장 임용철) 법무부 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 대전 제2거점운영기관센터장 나삼일 한국어교육센터 주임교수이 '2017년도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운영기관으로 지난해에 이어 재선정 되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민자들의 한국생활 정착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와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의 주관으로 매년 사업 기관을 선정해 오고 있다.

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대전 제2거점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이래 5년 연속 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안았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1억 1천여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사업선정으로 대전대는 연 인원 534명에 해당하는 학습자들을 위한 각종 사업을 비롯하여 바자회 행사 및 강사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들의 한국생활 적응에 다시 한 번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정복기자

예비군 육성 최우수 지자체 선정

서산시, 예비군 육성에 기여한공로 인정



서산시가 육군본부로부터 예비군 육성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19일 시는 민·관·군 통합방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예비군 육성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향토방위 체계 확립을 위해 예비군 육성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예비군 육성 지원금을 증액 편성하고 이를 지원했다.

위한 스마트 훈련장을 충청남도 최초로 설치했으며 훈련여건을 최장을 보장하기 위해 취사장 신축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향토예비군 육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충청남도에서 가장 많은 국가주요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서산시는 확고한 안보태세가 중요한 지역"이라며 "앞으로도 정예 예비군 육성과 군에 대한 활발한 지원을 통해 민·관·군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서산=김정환기자

농어촌·농식품 사진공모전 시상식

aT, 농어촌과농식품 대한 숨겨진 가치 재조명 위해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여인홍)는 지난 16일 양재동 a센터 a북카페에서 농어촌과 농식품에 대한 관심과 숨겨진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실시한 '제5회 농어촌·농식품 사진공모전'의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아름다운 우리 농어촌, 농식품 산업 현장의 땅과 열정'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사진공모전에는 총424명이 763작품을 출품해 그 어느 해보다 경쟁이 치열했으

며, 전문가 심사를 통해 '예술성, 창의성, 완성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20작품을 최종 입상작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입상한 총20점의 작품들은 연말연시에 서울 양재동 aT센터 1층 로비와 aT 나주 본사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aT 여인홍 사장은 "이번 사진공모전이 우리 농어촌의 아름다움과 농수산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CEO 49.5% 내년 긴축 경영”

한국경영자총협회, 259개사 대상... 2017년 최고경영자경제전망 조사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박병원)가 259개사를 대상으로 [2017년 최고경영자 경제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9.5%가 '긴축경영' 계획을 밝혔다. 이외에 '현상유지'는 30.7%, '확대경영'은 19.8%로 조사됐다. '긴축경영'이라는 응답은 300인 이상 기업이 60.5%, 300인 미만은 42.9%로 300인 이상 기업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기업의 장기불황에 대한 우려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의 62.8%는 현 회사의 주력사업이 향후 회사의 주요 수익원으로 가능한 기간은 '5년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규모별로 300인 이상은 '1년 이상~3년 미만'(38.5%), 300인 미만은 '3년 이상~5년 미만'(31.7%)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담을 나타냈다. 내년 투자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응답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내년 채용 규모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46.2%로 가장 높았고, '축소'(35.8%), '확대'(18.0%) 순으로 나타났다. 채용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응답은 300인 이상 기업(38.6%)이 300인 미만 기업(34.7%)보다 3.9%p 높게 나타났다.

최고경영자들은 2017년 경제성장률(GDP 기준)도 2.3%를 전망했다. 이는 국내 주요 기관들의 전망 2.4~3.0% 수준보다 보수적인 평가다. 2017년 경영환경의 주된 애로요인으로는 '정치·사회 불안'이 24.6%로 가장 높았고, 이어 '민간 소비 부진' 21.1%, '기업투자심리 위축' 14.6%, '보호무역 강화' 12.9%, '중국경제 둔화' 12.3%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올해 대비 2017년 투자 및 채용계획 방향에 대해 투자는 축소, 채용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2017년 투자계획에 대해 39.6%가 '축소'로 응답해 투자 확대에 대한

최고경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차기 대통령 유형은 '사회통합형 지도자'이며, 차기 대통령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덕목으로 '소통 및 화합 능력'을 꼽았다. 19대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한 지도자 유형을 묻는 설문에서 응답자의 33.1%가 '지역·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는 사회통합형 지도자'를 선택했다. 이는 지난 2012년 조사(11년 12월 시행)에서 18대 대통령으로 '사회통합형 지도자'(37.3%)를 가장 선호했던 결과와 같다. 다만 '개혁 추구형'이라는 응답이 2012년에는 6.3%에 불과했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21.7%로 높게 나타났다.

차기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덕목은 응답자의 43.4%가 '소통 및 화합 능력'이라고 응답했으며, 이어 '도덕성과 청렴성'(28.3%), '강력한 리더십'(21.4%), '개혁성'(6.9%)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수출부진 심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6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중간미군 방위비 증액 등으로 재정 부담'(16.9%),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수출기업 경쟁력 개선'(7.5%) 순으로 나타났다.

김정환기자

지방공무원 시험 경쟁률

원서미감측시 확인

앞으로 지방공무원 공채시험의 인터넷 원서접수가 훨씬 편리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시험의 인터넷 원서접수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1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의 액티브X 사용으로 인터넷의 익스플로러에 최적화된 환경에서 액티브X를 없애 크롬과 사파리 등 다양한 웹 브라우저를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또 원서를 접수할 때 개인별로 등록된 자격증 진위를 확인하고 가산점수를 사전에 공개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원서접수가 마감된 이후에는 본인이 지원한 직렬의 경쟁률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과거 지방공무원 시험의 시도별·직렬별 필기시험 합격선 점수도 맞춤형으로 제공받는다.

합격자 발표 이후에는 본인이 개인별 단안지 공개를 요청할 경우 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단안지 원본을 확인할 수 있다.

시험장소, 응시원서 조회, 합격·성적조회 등 개인별 수험정보를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서비스도 제공한다.

업무담당자용 시스템도 개편해 원서접수를 위해 광역 시도에서 시군구별·직렬별 모집인원, 시험과목 등 시험정보의 세부적인 사항을 쉽게 등록·관리할 수 있게 개선했다.

“재난안전통신망 기술 PCT 국제특허출원 꾸준히 증가”

특허청, 2013년 12건에서 2016년 354건으로 증가

최근 경주 지진, 세월호 침몰사고와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가 발생할 때 소방, 경찰, 군 등 재난유관기관들 사이에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하나로 통합된 재난안전통신망(PS-LTE)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분야의 기술개발과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PCT 국제특허출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재난안전통신망 주요 기술에 대한 국제특허는 최근 4년간 687건이 출원공개되었고 이는 2013년 12건에서 2016년 354건으로 증가했다.

(11.5%), 유럽 특허청으로 58건(8.4%)의 순으로 출원되었다.

재난안전통신망 기술분야의 PCT 국제특허출원에서 국내 기업의 출원과 우리나라 특허청으로의 출원이 많은 것이 눈에 띈다. 이는 우리 정부가 2014년에 국가 재난안전통신망의 기술방식을 PS-LTE로 지정함에 따라 국내의 관련 통신업체들이 연구개발과 표준화 활동을 활발히 추진한 결과로 보인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재난안전통신망 주요 기술에 대한 국제특허는 최근 4년간 687건이 출원공개되었고 이는 2013년 12건에서 2016년 354건으로 증가했다.

출원이 접수된 미국 특허청으로 가장 많은 297건(43.2%)이 출원되었고 이어서 중국 특허청으로 110건(16.0%), 미국 특허청으로 93건(13.5%), 일본 특허청으로 79건

특허청 김동업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장은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이와 더불어 국제특허와 국제표준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국내 관련 산업계가 PCT 국제특허출원과 같은 유용한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3차 공모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전국 공동주택 대상 신청 접수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는 19일부터 30일까지 전국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의 3차 공모를 시행한다. 10월 시행한 1차 공모에서는 233단지 714기(급속 237기, 완속 477기)를 최종 구축대상으로 선정해 시공중이며, 11월 시행한 2차 공모에서는 420단지 1198기(급속 339기, 완속 859기)를 구축대상으로 선정하고 현재 전기 구축협약을 체결중이다.

은 총 95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전국의 최대 4000개 공동주택 단지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해 충전인프라 부족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 전용 주차구획 배정 등의 설치 조건이 필요하다.

공동주택 세대 수를 반영한 기준 이내에서 희망하는 수량만큼 급속(50kW) 또는 완속(7.7kW) 고정형 충전기를 한전에서 설치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방안'의 후속조치로 한전

이번 3차 공모는 1,2차와 마찬가지로 한 전 홈페이지(www.kepco.co.kr)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

충전요금은 아파트 공용요금과 분리해 별도의 충전요금을 부과하며, 사용자가 개인 신용카드를 이용해 충전하고 충전요금을 현장에서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충전기를 설치할 수 없을 정도로 변압기 용량이 부족한 아파트와 재건축대상 아파트, 기술적으로 설치 가능한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산시, 2016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3등급 달성

아산시(시장 박기왕)가 국민안전처가 실시하는 2016년 자연재해에 대한 지역안전도 진단결과 3등급을 달성했다. 전년도 9등급에서 6등급 이상 대폭 상승한 성과다.

아산시는 2007년부터 지역안전도 진단이 실시된 이후 하위등급에서 머물러 있었으나 올해 처음으로 상위등급에 진입함으로써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여건 조성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성과로 아산시는 재해예방 노력 등으로 안전도

등급이 대폭 향상된 지자체에 지원되는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도 받게 되었다. 그동안 시는 지역안전도 T/F팀을 구성·운영해 방재정책 전반에 대한 협업행정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이 함께 대응하여 자주적 방재역량을 강화했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방재시설물 안전등급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은 결과이다"며, "앞으로 지역안전도를 1등급까지 끌어 올려 안전도시 아산 만들기 위해 더욱 정진하여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안전도는 지자체의 재난환경 요소인 ▲위험환경 ▲위험관리능력 ▲방재성능 등 3개 분야 46개 항목에 대해 서면 및 현지 진단을 실시하여 지역의 안전한 정도를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평가한다.

이경복 안전총괄담당관은 "지역안전도가 상위등급에 평가된 것은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얻

광고문의
(042)538-3030

세한대 경찰행정학과 우수학과 선정

“협력치안 실천으로 범죄예방에 앞장 선다”



세한대학교 당진캠퍼스 경찰행정학과는 지난 2015년부터 학교 내 '세한폴센터'를 개소해 지역사회내의 범죄예방,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방범법 적용한 지역사회 내 방범법단 및 환경정화, 범죄피해지원 활동 등 지역사회 내 범죄예방 저변확대와 더불어 정부시책(4대 사회약 등)에 적극적인 홍보로 협력치안을 실천해 지난 5일 관내 경찰관서로부터 범죄예방에 앞장서는 우수학과에 선정되었다.

세한대학교 경찰행정학과장 박상진교수는 "세한폴센터는 경찰관서와 협력치안으로 한정된 경찰력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체 안전망 구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세한대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은 그 속에서 경찰공무원에 대한 직업의식 향상, 전문지식 학습 등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전문적인 경찰관이 될 수 있는 발돋움의 기회"라고 밝혔다.

세한대 경찰행정학과는 '세한폴센터'를 통해 범죄예방활동,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활동 등으로 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실제로, 세한대 경찰행정학과는 이러한 활동으로 동안 600명 이상의 경찰관을 배출하는 등 경찰행정학과와 메카로 자리 잡았다.

당진=최근수기자



음봉초, 교육가족 학예한미당 개최 지난 16일, 한해를 보내는 마음으로 그동안 학생들이 교과나 창의적체험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기량과 방과후 교육활동 과정에서 배운 솜씨를 발휘하고 더 높은 꿈을 키워나가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음봉교육가족 학예한미당'과 '작품전시회'를 열었다.

예산 대솔면 채석단지 지정 결사반대

주민들, 채석단지 조성 대해 반대의 목소리 내며 집단행동 나서



서산소방서, 분향하수 요양원 소방교육 실시 서산소방서(서장 김경호)가 인지면 화수리 소재 분향하수 요양원에서 요양원 관계자 및 입소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 화재 발생시 대피요령 ▲ 소화기 사용 및 관리 방법 ▲ 요양원내 소방시설 점검 ▲ 심폐소생술실시요령 및 체험 교육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천안서북소방서, 겨울철 요양원 피난대피훈련 19일 10시 성환읍 소재 비타민 요양원을 대상으로 입소자 중심 피난대피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재난 시 인명대피 및 화재진화 등 지휘소방대의 초기대응 능력강화를 위해 실시되었다.



대전충남병무청, 제3회 『사회복무대상』 자체 시상식 19일 제3회 『사회복무대상』 자체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사회복무대상』수상자 뿐만 아니라 세종자치시와 공평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우수 사회복무요원 및 복무기관담당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이루어졌다.



대창초, 성교육 하트성 보건교실 운영 대창초등학교(교장 전연옥)에서는 이날 12일부터 28일까지 3주간에 걸쳐서 전교생 대상으로 성교육을 위한 하트성 보건교실을 운영한다. 아이들에게 성이란 무엇인지 마음 속 밝은 부분의 '하트성' 과 어두운 부분의 '다크성' 을 구별하고 성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알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다.

2017년 신규 의용소방대원 모집

아산소방서, 15일(목)부터 12월 30일(금)까지

아산소방서(서장 김득관은 12월 15일(목)부터 12월 30일(금)까지 운영남성의용소방대 온주지역대 등 16개 대 87명(남대 77명, 여대 10명)의 신규 의용소방대원을 모집한다.

의용소방대원은 지역사회 안전문화를 선도하고 각종 봉사활동 및 소방관서 업무를 보조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 화재, 구조, 구급 및 재난발생 시 소방현장 활동을 보조하고 화재예방순찰, 소방안전 캠페인 등 소방홍보활동을 수행 하게 된다.

지원 자격으로는 아산시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으로 ▲ 신체 건강하고 합동정신이 강한 사람 ▲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소방시설공사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 관련 자격·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 의사·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이다.

신청 접수는 아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및 현장대응단·관할119안전센터 방문 및 우편우편 접수 분은 30일 18:00 도착 분까지 유효접수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시험을 거쳐 2017년 01월 중 개별 통보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소방서 소방행정과 의용소방팀 담당자 ☎ 538-0231)에게 문의하면 된다.

아산=리량주기자

“우리는 채석단지 지정을 결사 반대한다. 누가 안락산맥을 절단했는가. 이것은 마을 정기를 끊어 놓은 것이다”

충남 예산군 대솔면 주민들이 주)신대원의 채석단지 조성에 대해 재차 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대솔면 주민 30여명은 19일 예산군청 앞에서 ▲누가 안락산맥을 절단했는가? ▲우리 마을 농산물인 사과, 채소에 돌가루 미세먼지가 왜 있는가? ▲석면이 나온다는데 아시나요? ▲환경영향 평가(초안은 누구를 위해 만들었는가? 왜 관공서

에서 열람해야 하나?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환경과, 자연경관 훼손, 행정기관은 방관하는가? ▲허가종료기간이 2021년? 마을 합 의서는 2017년인데 등을 주장했다.

이날 대솔면 시산리에 거주하는 주민 윤정수(여, 60세) 씨는 현수막을 가리키며 “우리의 주장은 이것이 끊어진 마을의 정기를 잇기 위해 산맥을 이어줘라. 요즘은 공법이 좋기 때문에 다리를 놓아 연결해주는 것도 좋다”고 방법을 제시하며 “우리 마을주민들은 그동안 미세먼지와 석면피해 등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는데

더 이상 우리 자식들에게 대물림을 시킬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발단은 주)신대원의 사업 초기 조성 허가 4만2383㎡에서 허가가 연장 추진되면서 전체면적과 사업기간이 늘어난 것에 따른 것. 현재 토석채취가 진행 중인 30만6342㎡와 신규 개발 33만5566㎡가 포함되면 대솔면 채석단지는 전국 최대의 규모(68만4291㎡)로 추가사업분(33만5566㎡)이 종료되는 2045년까지 운영된다.

이에 따라 마을주민들은 지난 16일 대솔면사무소에서 열린 채석단지 조성 주민설명회에서 사업 시행

철회를 주장하면서 고성이가 오는 등 업체 측과 극심한 의견 충돌을 빚었다.

이명을 요구한 주민 박 모 씨는 “사실 석산개발현장은 행정구역상 대솔면에 위치하지만 실제로는 대솔면 보다 예산읍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예산읍민들은 밭파면지에 노출되어 있다”며 “채석장 추가 개발예정지는 자연발생 측면 가능성이 높은 중간지역으로 토석채취시 석면 비산우려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군이나 의회에서 예산의 앞날을 걱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내포=전용식, 양승엽 기자

둔산서, 둔산초 학교폭력

예방 및 범죄예방교육

대전둔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계장 김준호)는 12.19(월) 대전둔산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학교폭력 개념 및 대처요령, 신고방법 등 초등학교 눈높이에 맞게 실시, 학교폭력에 대한 가치관 정립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폭력에 대해 다양한 시청각자료를 활용, 구체적 사례위주 설명으로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둔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김준호)는 “학교폭력 저연령화에 따라 학교폭력 발생우려가 높은 시기가 초등학교생 시절인 만큼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예방교육으로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봉관기자

신용카드 ‘부가 서비스(상품)’ 불이행 피해 많아

신용카드 제휴카드 할인, 캐시백, 적립, 채무면제·유예, 제휴할인, 캐시백, 적립, 리볼빙 등의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가 21.7%로 57건였고, 부가서비스 가입 과정에서의 설명 미흡 관련이 9.9%로 26건였다.

이 외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소비자의 청약철회·합부항변을 수용하지 않거나, 분실·도난 시 보상비율이 미흡하여 불만을 제기한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접수 건 중에서 금융감독원 중복접수 및 당사자 연락무결한 결과,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설명해주지 않는 등의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가 31.6%(83건)로 가장 많았고, 미사용 또는 과다대금 청구 등 ‘부당한 대금 청구’가 20.5%(54건)였다.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83건)는

채무면제·유예, 제휴할인, 캐시백, 적립, 리볼빙 등의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가 21.7%로 57건였고, 부가서비스 가입 과정에서의 설명 미흡 관련이 9.9%로 26건였다.

이 외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소비자의 청약철회·합부항변을 수용하지 않거나, 분실·도난 시 보상비율이 미흡하여 불만을 제기한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접수 건 중에서 금융감독원 중복접수 및 당사자 연락무결한 결과,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설명해주지 않는 등의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가 31.6%(83건)로 가장 많았고, 미사용 또는 과다대금 청구 등 ‘부당한 대금 청구’가 20.5%(54건)였다.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83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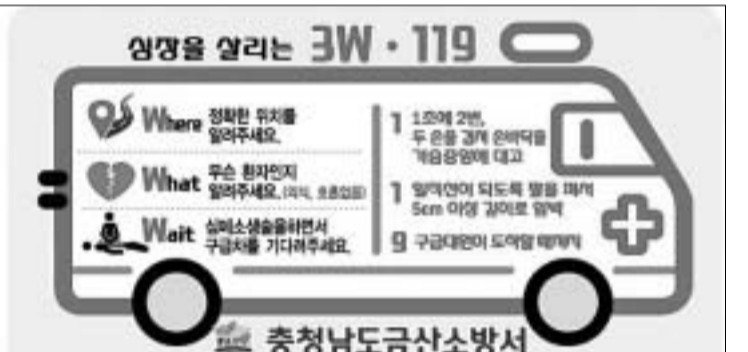
자와 상담회를 통해 소비자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부가서비스 가입권유 차 준수 및 이행 관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권고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소비자피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가입권유는 명확히 거절하고 ▲대금청구서를 꼼꼼히 살펴 가입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또는 사용하지 않은 대금이 청구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며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후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즉시 서면으로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통지할 것과 ▲신용카드 사용일람서비스를 활용하여 분실·도난 시 부정 사용을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김정환기자



“3W-119로 심장을 살려요”

금산소방서, 심정지 환자 대한 신속 정확한 신고방법 홍보



금산소방서(서장 조영학)는 심정지 환자를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소생시킬 수 있는 119신고요령인 ‘3W-119’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심정지환자는 4-6분이 지나면 뇌에 혈액 공급이 끊기면서 뇌손상이 급격히 진행되기 때문에 최초 신고인의 119신고와 침착하고 정확한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W-119’는 심정지 환자를 살리는 신고와 행동요령으로 ‘3W’는 ‘Where-환자 발생 위치를 정확하게, What-환자 상태를

어떻게 침착하게, Wait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구급차를 기다려주세요.’의 약자로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고요령을 말한다.

‘119’는 1.1초에 2번 두 손을 걸쳐 손바닥을 가슴 중앙에 대고, 1. (입)척진이 되도록 팔을 펴서 5cm 이상 깊이로 압박하고, 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의 약자로 행동요령을 뜻한다.

금산소방서 관계자는 “3W-119를 숙지해 심정지 환자 발견 시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119신고와 함께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증리달빛야시장 매대 운영 청년상인 수시 모집

상설 매대 30개 설치해... 2017년 2월 상설 야시장 개장 목표

대덕구는 증리전통시장 내부에 상설 매대 30개를 설치해 2017년 2월 상설 야시장 개장을 목표로 야시장 매대를 운영할 청년상인을 수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문화음식, 퓨전음식 등 이색적인 먹거리를 판매하는 먹거리 매대 20개와 핸드메이드 상품(공예품, 악세사리, 아트 등) 등을 판매하는 프리마켓 매대 10개를 특별제작하여 최종 선발된 청년상인(만19세부터 39세 미만)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청년상인 선발은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면접심사 및 시식 품평회를 개최하게 되며, 기존 시장 상인들의 품목과 중복되지 않는 이색적인 아이템을 판매하는 청년상인이 최종 합격자가 된다.

아울러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청년상인들은 특별 제작한 야시장 매대를 지원 받아 각자 개성 넘치는 먹거리 제공과 레시피 교육, 위생관리 등의 교육·컨설팅을 통하여 역량 있는 청년상인으로 육성하게 된다. 김태성기자

배재대, 원예학부 조경용수 활용 빗물저장시설 설치

친환경대학으로서의 면모 더욱 갖추게 돼



환경부지정 그린캠퍼스인 배재대학교가 지역대학 중에서는 처음으로 빗물 저장시설을 확보하여 친환경대학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갖추게 됐다. 대학은 최근 800㎡ 규모의 빗물저장시설을 온실관리동 건물 뒤 지하에 설치하여 연간 72톤의 빗물 사용이 가능해졌다.

배재대는 신재생에너지로 설비 중 하나인 빗물저장시설을 온실관리동 뒤편 깊이 2.2m 지하에 매설하고 원활한 사용을 위해 지상에

수도관 2개소를 설치하여 대학의 조경용수와 청소용수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시설은 우천 시 온실관리동 지붕층의 빗물을 선흡통을 통해 지하의 폴탱크로 유입한 후 정화과정을 통해 확보된 깨끗한 수질의 용수를 기계펌프로 끌어올려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장기간 가뭄 등의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일부 상수도 요금을 절감하는 등의 기대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

또 저장된 빗물을 원예조경학부 학생들의 식물 재배용 조경용수로 활용할 계획으로 수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원예조경학부 서병기 학부장은 “대학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빗물을 활용한 시설을 학생들의 현장실습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한다”며, “단순한 설비가 아닌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적 책임이행과 자원을 재활용하는 에너지절감 사례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재대는 올해 환경부로부터 지원받은 그린캠퍼스 사업자금으로 도서관 건물 열람실 및 대출실의 등기구를 LED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연간 5백만원의 유지관리비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기존 에너지 소비비 구간에 대해 기, 전기설비를 친환경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등 대학을 대표하는 그린캠퍼스 운영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 중이다. 이정복기자

럭스피아, 이웃돕기 톡큰 기부 ‘눈길’

충남아너소사이터 회원 성석종 대표 및 임직원 7천만원 기탁



어려운 이웃을 위해 회사 대표와 임직원들이 고액의 성금을 십시일반 모아 눈길을 끌고 있다.

럭스피아(주) 성석종 대표와 임직원들은 19일 오전 11시 경기도 수원시 럭스피아(주) 본사에서 성석종 대표와 임직원, 정진욱 총무, 고내 에너지 다소비 구간에 대해 기, 전기설비를 친환경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등 대학을 대표하는 그린캠퍼스 운영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 중이다. 이정복기자

한 성금으로 지난해 5천만원에 이어 올해도 성금을 전달, 주변에서 톡큰 기부를 했다고 회자되고 있다.

특히 성석종 대표는 2015년 10월 충남아너소사이터 22호 회원에 가입했으며, 형성우도 동원이엔씨 대표, 조카 성영수 터치스톤 대표와 함께 한 집안에 3명의 아너소사이터 회원이 가입해 기부명분이 1호에 이름을 올리는 영예를 안았다.

송병배기자

구직자 88%, 높은 연봉보다 적은 야근 더 좋아

<사람인> '입사를 희망하는 기업의 연봉과 야근 조건' 조사 결과

회사를 선택할 때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구직자들은 연봉보다 적은 야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구직자 400명을 대상으로 '입사를 희망하는 기업의 연봉과 야근 조건'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65.5%가 '연봉 중간, 야근 적은 기업'을 선택했다.

뒤이어 '연봉 낮음, 야근 없는 기업'이 22.8%, '연봉 높음, 야근 잦은 기업(주말 근무 포함)'을 선택한 비율은 11.8%에 그쳤다. 즉, 높은 연봉보다는 적은 야근

을 우선순위에 둔 구직자들이 더 많은 것.

각 조건별 선택 이유를 살펴보면, '연봉 중간, 야근 적은 기업'을 고른 응답자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삶의 질이 높아져서'(29.8%)와 '취미활동 등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해서'(26.3%)라는 응답이 비슷하게 선택되어 연봉과 퇴근 후 시간을 적절히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봉 낮음, 야근 없는 기업'을 선택한 경우 '취미활동 등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해서'(31.9%)와 '사생활을 존중하는 조직문화일 것 같아서'(24.2%)가 주를 이뤘고, '연봉 높음, 야근 잦은 기업'을 선택한 응답자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야 살의 질이 높아져서'(51.1%)와 '경제적으로 더 풍요롭게 생활하고 싶어서'(40.4%)가 단연 높았다.

그렇다면, 워라벨 기업에 취업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연봉과 예상 근무시간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워라벨 기업에 취업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초봉은 평균 2,766만원, 워라벨과 관계 없이 취업할 경우 기대하는 초봉은 평균 2,900만원으로 워라벨을 고려하지 않을 때와 비교해 약 224만원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 워라벨 기업에 취업할 경우, 평일 기준 하루 평균 예상 근무 시간은 '8시간'(41.8%)이 가장 많았고, 워라벨과 관

계없이 취업할 경우에는 '10시간'(28.5%)을 첫 번째로 선택했다.

사람인의 임민욱 팀장은 "삶의 질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워라벨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경기 침체로 취업난뿐 아니라 기업 내 경쟁도 심해진 상황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며 자신의 역량을 쌓아가려면 적성과 가치관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한 후 그에 부합하는 여건을 갖춘 기업을 선택해야 만족하며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복기자



금산교육지원청, 2016년 학부모 학교교육참여 평가회 및 행복연수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손중대)은 지난 16일 금산교육지원청 3층 회의실에서 도의원(김석근, 김복만), 학부모협의체(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및 교사 60명을 초대하여 2016 학부모 학교교육참여 평가회 및 행복연수를 가졌다.



이산교육지원청, 취약계층학생 지원 기관 감사대 전달 19일, 이산교육지원청 교육장실에서 행복이산교육 취약계층학생 지원에 공헌한 유관기관 13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관계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대 전달식을 개최했다.



부여교육지원청 Wee센터, 2017 부소라이온스클럽 장학금 장학금 전달식 지난 19일 국제라이온스협회356-(충남/세종지부) 부소라이온스클럽에서 지원받아 관내 초·중·고등학교 1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태안인면초 "대통령기독서대회에선 최우수상" 태안인면초(교장 김분식)가 제 36회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 대안군예선에서 박유혁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계룡 용남중, 외교관 초청 진로특강 실시 용남중학교(교장 이영철)은 16일 강당에서 주북룡 현 충남도 국제관계 대사를 초청해 진로특강을 실시했다. 학생들에게 어릴 적부터 꿈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 이야기 하며 본인의 외교관의 꿈을 키우게 된 계기와 외교관이 하는 일,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연했다.



홍성여고, 충남 수학창의선도 우수학교 선정 홍성여고(교장 유병대)가 2016 충남 영어교육 우수학교로 선정에 이어 2016 충남 수학 창의선도 우수학교로 선정되어 교육감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로 급간 영어·수학을 위한 정복하는 쾌거를 이뤘다.

세종시교육청,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 예정자 늘어

취학예정자수는 올해 3,223명에서 33% 증가한 4,300여명 예상

올해도 어김없이 취학시즌이 돌아왔다. 걱정 반, 설렘 반인 학부모들은 예비 초등학교생들의 새출발을 돕기 위해 바쁘고, 주민센터와 학교, 교육청은 취학대상자 1명이라도 더 입학시키기 위해 분주하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2017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내달 20일 오후 2시에 동시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입학식은 내년 3월 3일까지 학교별로 진행된다.

취학 대상자는 2010년에 출생한 적령 아동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출생한 학령아동 중 미취학아동, 2011년에 출생

한 조기입학 아동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개교학교 5교를 포함한 43개 학교의 총취학예정자수는 4,300여명으로 올해 3,223명 대비 33%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20일까지 아동의 현 거주지 기준으로 1차 취학통지서를 배부받으면 공동주택 등 입주시기와 해당학교 개교 시기가 다른 신입생의 학부모는 입주예정 지역 관할 주민센터에 관련서류인 취학통지서, 입주예정)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취학통지서를 변경할 수 있다.

취학통지서를 변경하지 못했다면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개교예정 학교 예비

소집에 직접 참가하면 된다. 부득이 예비소집에 가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취학통지서를 변경하거나 개교예정 학교에서 입학절차를 밟으면 입학이 가능하다.

특히, 세종시교육청이 내년 10,370세대 공동주택의 입주시기가 2~8월인 점을 고려해, 전입신고 전이라도 새학기 시작과 동시에 입학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수립했으므로 입주 후 전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됐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jgo.kr) 공지사항 646번 '2017년 개교학교 및 공동주택 입주예정지역의 초등학교 입학 관련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이정복기자

성모여고 '2016년 교과교실제 전국 10대 우수학교 선정'

생각이 열리고, 열정이 샘솟는 선진형 교과교실제 운영



대전광역시 교육청(교육감 김동호)은 대전성모여자고등학교(교장 정아영)가 '2016년 교과교실제 운영 전국 10대 우수학교'에 선정,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과교실제 우수학교 선정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주관하였으며 학교 현장의 우수사례

를 발굴·보급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고, 교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실수업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수학교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추천한 중·고 34개교 중에서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4개교 등 총 10개교가 선정됐다. 대전성모여고

김정환기자

대전 Y-SMU포럼 전국 평가대회 최우수상 수상



대전시새마을회(회장 한재득) 산하 대전 Y-SMU포럼(회장 김민성)이 지난 16~17일까지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개최한 2016 전국 Y-SMU포럼 평가

대회에서 국고사업부문 최우수상, 건전한 대학문화 UCC제작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2016 Y-SMU포럼 연말평가대회는 17

개 시도포럼이 일련동안 활동한 Y-SMU포럼 활동실적 및 국고사업인 "건전한 대학문화, 꿈의 캠퍼스" 사업 실적평가 우수포럼을 시상했으며 우수사례 발표, 한마음 팀빌딩 등으로 진행됐다.

대전 Y-SMU포럼은 2016년 한해동안 대전권내 10개대학이 참여해 대학생들이 밝고 활기찬 대학문화 조성을 통해 건전한 대학문화를 창조·선도하는 청년리더로 성장하고 대학생들의 더불어 살아 가는 공동체정신 실천 및 공동체문화 조성에 기여했다.

송병배기자



충남도교육청, 학교 급식지원 정책방향 설명회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고등학교 학교장과 운영위원장 234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학교 급식지원의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19일 충남농업기술원에서 가졌다.

설명회에서는 '자치단체 친환경 경식품비 지원 확대', '2식 이상 급식학교에 대한 추가인력지원' 등 내년부터 바뀌는 충남 학교급식 주요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충남도의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이해' 강연이 펼쳐졌다.

올해 충청남도 친환경경식품비 91억 원, 교육청이 친환경급식의 날 운영비 22억 원을 지원했으나, 고등학교 급식의 경우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일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충남도교육청은 내년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7월 '충청남도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 조·석식 친환경 식품비 확대지원 심의요구서를 제출했고, 심의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식품비 중 유치원 390원, 고등학교 500원, 특수학교 500원을 중식에 한해 190원 지원했던 데 비해 내년에는 유치원 400원,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아침·점심·저녁 3식 모두에 500원을 지원한다.

이정복기자

천안성성중, 난타공연 한마당 개최

천안성성중학교(교장 조병훈)에서는 12월 16일 '나와 너, 그리고 우리, 우리들의 작은 음악회'라는 주제로 난타 공연을 열었다.

이번 공연은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높이고 창의성 및 표현력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가 희망 학생 9명을 선발하여 2학기 내내 매주 금요일마다 연습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꿈을 펼쳐 빛이 되자'라는 학교 교훈을 새긴 단체복을 입은 학생들이 처음에는 조금 쑥스러워하는 듯 보였지만 곧 음악이 시작되자 누구보다 진지한 태도로 공연에 임했다. '헝가리 무곡'과 '바다로 간 연아'에 맞추어 흥겹고 멋진 공연을 선보이는 모습에 선생님들도 골 동화되어 합창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난타 공연 후에는 《사계동행 난타 배우기》시간을 통해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직접 난타를 배우면서 공연이 끝난 후의 아쉬움을 달렸다.

천안=김정환기자

• 정 •

안전총남비전 2050 관련 간담회



안희정 충남도지사= 20일 오전 11시에 도청 접견실에서 열린 안전총남비전 2050 관련 간담회에 참석.

12월 정례 브리핑 주재.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20일 오전 10시 30분 시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12월 정례 브리핑을 주재.

세종시 노후 경유차 교체시 100만원 한도 세제지원 홍보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내년 1월~6월 시행되는 노후 경유차 교체 세제지원 홍보에 나섰다.

지난 8일 '지방세특별제한법'이 일부 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100만원 한도)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세종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한 경유 승합·화물차를 말소등록하고, 신규 승합·화물차를 구입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5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반드시 기간 내 기존 차량을 폐차·말소하고 새차를 신규 등록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 승용차를 교체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혜택이 없고, 내년 6월 30일까지 1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 70%가 감면된다.

세종=김정환 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국토연구원 세종청사’ 준공

내년 1월에 350여명 이전... 정부출연연구기관 15개 기관 행복도시 이전 완료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축 중 하나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대이동이 국토연구원 이전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종재, 이하 행복청)은 세종시 반곡동(4-1생활권)에 신축되는 ‘국토연구원 세종청사’를 준공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연구원 세종청사’는 16500㎡ 부지에 연면적 20000㎡(지하 1층·지상 8층) 규모로, 1~3층은 행정지원시설, 4~7층은 교육연구시설로 사용된다.

국토연구원은 '17년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약 350여명이 신속한 세종청사로 이전할 계획이며,



국토연구원의 이전을 끝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15개 기관 약 3550명이 행복도시로의 이전을 완료하게 된다.

2013년도에 한국개발연구원 등 3개 기관 857명, '14년도에 경제·인문사회연구원 등 11개 기관 2335명이 이전하였고, 기존청사

(평촌 소재) 매각 문제로 지연되었던 국토연구원이 마지막으로 이전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행복도시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외에도 선박안전기술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방역위생본부 등 각종 공공기관의 이전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다.

추호식 건축과장은 “40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행복도시 이전이 완료되고, 각종 공공기관의 이전도 늘고 있다”면서, “다양하고 특화된 편의시설을 확충해 이전기관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복도시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정복기자

예산군 올해 예산 5751억여 원 최종 편성

“소모성 경상경비 동결·삭감 등 긴축재정 펼친 결과”

예산군은 올해 마지막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5751억여 원을 최종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편성된 최종예산은 기정 예산 5575억 원보다 3.2% 증가한 179억 원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

는 5430억 원, 특별회계는 321억 원이다. 주요 세입 증가 요인으로는 지방세가 9.5% 증가한 465억 원, 조정교부금은 3.6% 증가한 199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3% 증가한 2123억 원 등이다. 군은 지방

채 조기상환으로 부채 없는 건전한 지방재정을 만들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30억 원을 상환할 예정이며 민선 6기 들어 총 73억 원의 채무를 상환하게 된다.

현재 군의 부채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예산군민체육관건립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152억 원이며 이

번 추가경정예산에서 30억 원을 상환하게 되면 채무 잔액은 122억 원이다.

군 관계자는 “채무를 조기상환할 수 있는 것은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과감히 배제하고 사무관리비 등 소모성 경상경비를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등 긴축재정을 펼친 결과”라고 말했다.

예산=양영기기자

충남도정 주요 성과 공유·평가

‘도민께서 평가해 주십시오.’ 행사

올 한 해 충남도정 주요 성과를 도민과 공유하고, 평가하는 자리 가 열렸다.

도는 19일 예산 덕산리솜스파에서 남궁영 도 행정부지사와 제4기 범도민정책서포터즈 등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민께서 평가해 주십시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 초 안희정 지사와 도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체결한 직무성과 계약과제에 대한 이행결과를 도민에게 보고하고 평가 받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22개 후보 사업 성과 발표와 투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22개 후보 사업은 정책자문위원과 자체평가위원, 도민평가단, 전문가 설문 등을 통해 선정했으며, 3대 행복과 3대 혁신으로 나뉘 발표를 가졌다.

후보 사업 중 ‘행복한 성장’ 시책으로는 △경제위기 속, 충남무역 전국서 가장 빛났다(2016 무역

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6억 8000만 달러 외자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기여 △충남 교통지도 천지개벽(天地開闢, 11조 6240억 원 확정 △서산 대산항, 중국과 국제여객선 취항 확정, 당진항-신평 내항 진입도 여타 대상 선정, 보령 신항 국가계획에 반영 △대한민국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 혁명의 중심에 선(다국가인증센터 유치) 등이 발표됐다.

또 ‘행복할 권리’ 시책으로는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 수립으로 도민 행복 기반 마련 △한 발 빠른 자연재해 대응, 인명피해 제로 △도민과 함께 빛어낸 ‘안전총남비전’ △제97회 전국제전 및 제36회 전국장애인체전 성공 개최 △섬 주민의 ‘건강 파수꾼’, 바다 구급서비스 개선으로 심정지환자 생생물 도 단위 1위 달성 △충청권 최초 안전체험관 개관, 12만 명 체험, 만족도 최고! △사회취약계층 지원 신용보증으로 도민에게 다가



가다 등이 소개했다.

이와 함께 △방조제 열여 생애 계 승룡 터주자! 미래세대 생명 공간 연안·하구 생태복원 △백제왕도, 2038년 고품격 역사문화도시로 재탄생 △지구 최후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총량관리제로 지키자!, 대산산단 해수담수화시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가로포만 해양보호구역 지정 권철, 조력발전소 건설문제 종식 등은 ‘행복한 환경’ 시책 후보 사업으로 발표가 진행됐다.

3대 혁신 중 ‘행정혁신’ 시책으로는 △전 국민과 함께 찾아낸 총

남의 비경 70선 홍보 △전국을 선도하는 충남형 행정혁신 또 빛났다 △청렴도 전국 2위, 더욱 깨끗하고 투명한 충남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등 3개 사업이, ‘자치혁신’은 △‘민주주의와 행복’ 두 마리 토끼 잡는 인권정책이, ‘3능혁신’으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관협력 꽃으로 피어나다가 발표됐다.

도는 이번에 범도민정책서포터즈가 뽑은 사업을 토대로 최종 선정 절차를 가진 뒤, 조만간 ‘2016 도정을 빛낸 10대 사업’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김정환 기자

홍성보건소, 출생 50일 기념 무료 사진 촬영 제공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홍성군 보건소는 16일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추진을 위해 ‘우리아기 첫 나들이’ 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태어나는 소중한 우리 아기의 순간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도록 50일 기념사진을 촬영해 액자에 담아 주는 사업으로 아기사진 전문가인 ‘베베라 스튜디오’에서 사진촬영과 액자 등을 무료로 지원해 주고 홍성군보건소에서는 대상자에게 사업 안내를 해주는 민·관 협력 사업이다.

이에 홍성군은 우리아기 첫 나들이 50일 기념사진촬영 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더불어 아기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일석이

조의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우리아기 첫 나들이 사업 50일 기념 사진은 홍성보건소에서 매월 출생아를 파악해 각 가정에 탄생 축하카드와 함께 촬영권을 우편으로 보내드리면 각 가정에서는 ‘베베라 스튜디오’에 사전예약을 한 후 이용하면 원목 액자에 담긴 아기 사진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우리아기 첫 나들이사업 협약을 시작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전용식기자



‘뚝뚝세종’ 최우수아이디어

어린이 자전거헬멧 지원 선정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뚝뚝세종’ 최우수아이디어로 ‘자전거 안전교육 이수 어린이 헬멧 지원’을 선정했다.

‘뚝뚝세종-시민의 한수’는 시민들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 아이디어를 시장에 반영하는 장치로서, 지난 4월부터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집해 왔다.

‘뚝뚝세종 자문단’은 2016년 한 해 동안 시민과의 대화, 홈페이지 등 ‘뚝뚝세종’을 통해 들어온 720건을 대상으로 26건을 채택했다.

12월 3일~11일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에서 투표를 거쳐 순위를 결정했다.

최우수 아이디어인 금상은 ‘자전거 안전교육 이수 어린이 헬멧 지원’이 선정됐다. 안전교육 이수 어린이에게 자전거 헬멧을 지원해 주자는 제안으로, 자전거 문

화도시, 안전도시, 아동친화도시라는 세종시의 성격에 맞는 아이디어로 많은 표를 얻었다.

은상 2건은 ‘불법 주차위반 시 SMS 문자 통보’, ‘복합 내 운동시설 주말 개방’으로,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이 시민 호응을 얻었다.

동상은 5건으로 ‘책 나눔’, ‘사물인터넷 활용 LED 가로등 설치’, ‘무장애 산책로 조성’, ‘은퇴자활동용프로그램 마련·지원’ 등이 선정됐다. 채택된 26건은 이달 중 금상 300만원, 은상 150만원, 동상 50만원, 장려 25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 방안을 마련해 시장에 더욱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정환기자

enfiren advertisement for tires. Text: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가장 '자연'스럽게 달리는 기술'. enfiren 알뜨랄 효과란? HALKOOK logo.

동정

간담회



김홍장 당진시장 = 20일 오후 4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학교급식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주재.

이·취임식



이종운 당진시의장은 20일 오후 2시 구 면천초등학교에서 열리는 면천은행나무 천원기념물 지정기념식에 참석, 오후 7시 설악웨딩타운 루비홀에서 열리는 제38대 당진시청년연합회장이 이취임식에 참석.

종합평가회



한상기 태안군수는 20일 오전 10시 30분 군 농업인교육관에서 열리는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에 참석.

경진대회



이석화 청양군수는 20일 오후 2시 청양문예회관에서 열리는 2016 새마을농촌지도자경진대회에 참석.



농·특산물대도시 직거래장터운영 장평면,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

청양군 장평면(면장 송석규)이 지난 16일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삼성장미아파트 주변에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판촉활동을 펼쳤다.

이번 군포시 직거래 장터는 지난해 8월 25일과 12월 11일, 올 11월 11일에 네 번째로 갖는 행사로 청양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대도시 아파트 밀집지역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날은 청양지역에서 생산된 쌀류, 잡곡류, 콩, 팥 등 농산물과 배, 사과 등 과일류 그리고 견과류, 표고버섯, 고사리, 곤드레, 둥근마, 도토리묵 등 특산물 판매활동으로 1500여만 원의 판매수익을 올렸다.

행사에 참여한 이모 씨는 "직접 생산한 우수한 품질의 농·특산물을 대도시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이 매우 좋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거래장터에 참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면 관계자는 "물가하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특판전을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이후 대대적으로 대도시 농·특산물 특판전을 통해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청양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내년 정부예산 6450억 원 확보

당진시, 올해 대비 2429억 원 증가...김홍장 시장 당위성 설명하는 열의 보여

당진시는 2017년 정부예산으로 올해보다 2429억 원 증가한 6450억 원(국가사업 6096억, 지자체사업 354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중 2017년 정부예산 확보 주요 사업은 ▲장고항 국가어항 개발사업 64억 원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5,833억 원 ▲삼교방조제 배수갑문 확장 90억 ▲충산2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공사 39억 원

▲충악 읍소재지 정비사업 40억 원 ▲남원천 및 역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9억 원 등이다.

김홍장 시장은 정부예산 확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진상황 보고회를 직접 주재해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주요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방문해 당위성을 설명하는 열의를

보였다. 이러한 노력은 정부예산 확보 전 선행되어야 하는 정부의 주요계획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시의 주요 현안사업이 포함되는 성과로도 이어졌다.

우선 당진지역 남부권 성장동력의 역할을 할 국지도 70호선 확장사업(총사업비 1,417억 원)이 국토교통부의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돼 2017년부터 설계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의 최대 속원사업인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총사업비 2,238억 원)도 정부예산 확보과정에서의 노력으로 기획재정부의 2017년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 선정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우리/동/네



다문화가족과의 행복한 동행 호응

태안군, 1:1 멘토·멘티 지원 등 프로그램 다채

태안군이 관내 결혼이주여성들의 빠른 적응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빠른 적응력을 보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태안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센터장 문태준)와 태안군새마을지회(지회장 고대식)는 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새마을지도자와 결혼이주여성의 행복한 동행(이하 행복한 동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행복한 동행' 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멘토·멘티 교육을 실시해 우리문화에 대한 빠른 적응을 돕고 이들을 지역의 미래 여성 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1월 18일부터 12월 16까지 4주간 여성회관 등지에서 실시됐다.

특히, 결혼이민자 10명과 관내 여성지도자 10명을 1:1로 매칭, 한지공예와 가족공예, 떡 만들기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알려 호평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여성지도자들의 다문화 이해도도 높이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밖에도, 태안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김성철을 맞아 11월 17일부터 12월 13일까지 3회에 걸쳐 한식조리사를 초청해 다문화가족 30가정을 대상으로 김치 담그는 법을 전수하는 등 다양하면서도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며 군민들과 다문화가정 간 '행복한 동행'에 앞장섰다.

군 관계자는 "다문화가족은 앞으로 농어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주여성 등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환기자

태안군 AI유입 차단 청정지역 지키기에 온힘

광역살포기와 방역차량동원해 집중 소독·유관기관 적극 협력



전국으로 고병원성 AI가 확산일로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AI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한 가운데, 태안군이 거점소독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긴급 방역을 실시하는 등 AI 유입 차단

위해 온힘을 다하고 있다.

군은 지난달 남면 당암리 B지구 관광안내소에 'AI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한 데 이어 19일부터 평천4리 마을회관 앞에 거점소독시설(U자형)을 추가로 설치, 관내 유입되

는 모든 축산관련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긴급 상황에 대비해 살처분 계획을 수립, 살처분 용역·장비·물품 보급 등 연락체계를 확보하고 살처분 매뉴얼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만약에 대비한 준비태세 확립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6일 현재 AI는 전국 26개 시·군 157개 농가에서 발생했으며, 충남지역(아산, 천안)을 비롯해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등 발생범위가 광범위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AI가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데다 지역 간 수평적 전파가 이뤄지고 있고 겨울철 추운 날씨 탓에 소독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군은 보다 적극적인 차단대책을 마련, '청정 태안'을 지켜내겠다는 각오다.

태안군에는 지난달 말 현재 11개 농가가 45만 9500마리의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으며, 군은 AI 발생 즉시 '구제역·AI 상황실'을 설치, 소

독약품 2,000kg와 생석회 1만kg를 농가에 긴급 보급했다.

또한,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현장 방역지도도 실시하고 'AI 예방 담당제'를 지정해 주 3회 이상 예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 취약농가에 대해서는 광역살포기와 방역차량을 동원해 집중 소독을 실시하는 등 대비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군은 한상기 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가축질병 특별방역추진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19일부터 내년 4월 19일까지 4개월 간 평천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는 한편, 필요시 행정 및 안전부서를 비롯해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력해 유입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한상기 군수는 "고병원성 AI가 확산됨에 따라 군에서는 AI 유입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철저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며 "차량소독 여부 및 가축이동사항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방역누수를 원천 차단하고 거점소독시설 운영에도 최선을 다해 'AI 청정 지역'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환기자

미래농업 꿈 부자농촌 만들기 발전방안 협의

청양군, 농업 발전을 위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열려

청양군은 19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심의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결과평가회'를 개최했다.

청양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농업기술센터와 농과계 학교·농업인 단체 및 농업인의 산·학·관·연 협동체계를 구축하고 농업

과학기술의 효율적인 발굴보급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농촌지도사업의 주요 성과 및 우수사례에 대한 평가가 있었으며, 농업 현안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부자농촌 만들기 가속화를 위한 농업인의 날 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다양한 시범사업, 젊은 미래영농세대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 및 농촌자원 6차 산업 수익모델 창출에 노력을 기울였다.

또 여성농업인 생활기술과제교육, 인구증가를 위한 귀농귀촌사업, 영농비용 절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

사업소 운영, 농업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신기술보급, 우량종묘 보급을 위한 다목적 육묘장 운영 등 농업인 맞춤형 사업을 추진했다.

한편, 군 농기센터 강상규소장은 "금년,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직원들의 업무추진으로 농촌지도사업의 큰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며 "새해도 영농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맞춤형 기술의 신속한 보급으로 잘사는 청양농촌 만들기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아산시 2016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열려



당진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대상 여성용품 지원

당진시보건소가 가격상승과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여성용품인 생리대 구입을 못하고 있는 여학생들을 위해 여성용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11세부터 18세에 해당하는 여학생으로, 의료급여 및 생계수급자,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병과 후아동복지시설 이용자, 가정

위탁자가 해당된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우편 발송된 신청서를 작성해 본인이나 가족 또는 대리인이 보건소와 각 읍·면 보건지소에 12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에게는 보건소가 여성용품을 일괄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복지시

아산시보건소는 지난 15일 보건소 별관에서 2016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했다.

공무원 및 주민주도 사업 협력기관, 건강도시 시민참여단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열린 이번 대회는 2016년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행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담당자 발표(우수사례 중심), 건강도시 시민참여단의 건강한 환경조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발표, 탕정면 주민자치회장의 주민주도형 으락차차 건강플러스

하모니 사업의 활동사례 발표로 진행됐다.

또한, 재향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시각장애인 라인댄스 발표 및 2017년 아산시통합건강증진사업 방향성 제시 및 역량강화를 위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과 이주영 교수의 강의로 합동 실시됐다.

아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직원 간 업무공유와 역량강화를 통해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정책방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건강아산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정서적으로 민감한 여학생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전달에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보건소는 저소득층 가정 여학생 여성용품 지원사업을 2017년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문의하면 된다.

당진=최근수기자



온양5동 이웃사랑성금 집중모금행사

아산시 온양5동(동장 강용구)은 지난 16일, 연말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온양5동 주민센터에서 '희망2017나눔 캠페인 이웃사랑성금 집중모금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온양5동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행복키움추진단 등 관내 기관·단체를 비롯해 기업, 주민 등 100여명이 참여해 적극적인 기부와 후원에 동참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훈훈한 자리가 됐다.

행사에 참여한 익명의 주민은 "작은 양이지만 배추를 손수 팔아 모은 돈을 좋은 일에 쓰고 싶어 참여하게 됐다. 초등학생 아들도 좋은 일에 동참하겠다고 용돈을 모아 작은 정성을 보냈다. 이렇게 모인 성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강용구 온양5동장은 "올해 들어 날씨가 많이 추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분별 이러한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내년 1월 말까지 진행될 희망2017 나눔 캠페인 이웃사랑 성금모금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2017나눔 캠페인 이웃사랑 성금모금은 2017년 1월 31일까지 수시로 접수할 예정이며, 성금모금 관련문의는 온양5동사무소 복지팀(041-537-3754)으로 하면 된다.

또한, 온양5동 행복키움추진단(단장 강연식)은 이날 성금모금과 함께 '온양5동 행복키움추진단과 함께하는 나눔 캠페인 후원동행(동행)'이라는 기치아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온양5동 행복키움추진단 홍보활동도 병행 실시하며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아산=리량주기자

우리/동네

지방세 징수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부여군, 11억4천만원 징수·체납 자동차 번호판 328대 영치 등 활발한 징수활동 펼쳐



안전관리자문단 정기회의 열려

국민안전처 지역안전지수 공개·계룡 충남에서 가장 안전

계룡시(시장 최홍욱)는 지난 15일 상황실에서 '계룡시 안전관리자문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는 올 상반기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와 자문단 활동실적, 2017년 자문단 운영방향 등에 대한 협의와 운영상 개선방안 토론 및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계룡시 안전관리자문단은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의 안전점검,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자문, 각종 점검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및 상담 등 다양한 분야의 안전점검과 자문을 수행해 왔다.

김연우 안전총괄과장은 "최근 각종 대형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자문단 위원들의 실무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사전 예방을 도모하고 재난 없는 계룡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민안전처가 지난 8일 발표한 2016년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7개 분야에 대한 지역안전지수 공개 결과 3개 분야 범죄, 안전사고, 감염병에서 1등급을 받는 등 계룡시가 충남 시·군에서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나타났다.

주민자치형 마을갈등조정자 위촉

천안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6주간 교육과정 수료

천안시가 2017년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주민자치형 마을갈등조정 제도의 시범실시에 참여하는 마을갈등조정자들을 위촉했다.

시는 19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마을갈등조정자 위촉식을 갖고, 지난 11월 14일부터 6주간의 조정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2017년 시범실시 8개 읍·면·동 17명의 주민자치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구분영 시장은 위촉식에서 "마을갈등조정제도는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자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 간 관계 회복을 통해 마을공동체 형성기반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고 밝히고, "천안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마을갈등 조정자 위촉된 주민자치위원들이 함께 노력해 시민중심 행복천안의 기틀을 다져 나가자"고 제언했다.

한편, 천안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마을갈등조정제도는 주민 스스로 마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민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2017년 동남구 목천읍, 풍서면, 광덕면, 병천면, 원성1동, 서북구 성정2동, 쌍용2동, 쌍용3동 등 8개 읍·면·동에서 시범실시를 통해 성과평가 및 제도 보완 등을 거쳐 2018년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1월 14일 국무총리실 지정 공공갈등연구기관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센터(소장 가상준)와 공동협력을 체결한 바 있으며, 앞으로 마을갈등조정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자문 및 지원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천안=김정환기자

2017 '건강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논산시, 지역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건강한 생활터 조성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 건강관리와 내 주변 건강한 생활터를 조성하는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공모에 들어갔다.

"건강마을 만들기"는 건강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 건강문제에 참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기르도록 마련됐으며, 논산 지역 내 2개 마을을 선정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사업 신청은 주민들 스스로 건강한 생활터 조성 사업에 열정이 확고하고 주민 참여가 활성화된 마을이면 참여가 가능하며, 다음 달 6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보건소 건강도시지원과로 우편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

공모에 선정된 마을은 건강계단 설치, 금연아파트 지정, 찾아가는 통합건강진단사업, 건강마을 인증 현판 부착 등을 지원받게 되며,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건강 동아리 구성 및 활동을 하게 된다.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http://nonsan.go.kr)를 참고하거나 보건소 건강도시지원과(041-746-8053)로 문의하면 된다

논산=이길구기자

부여군군수 이용우는 충청남도 주관 2016년 지방세 체납 징수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올해 지방세 체납액 11억4천만원 징수, 체납 자동차 번호판 328대를 영치하는 등 여러 평가 항목에서 뛰어난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군은 16개 읍·면을 담당하는 '부여군21세금기동팀'을 4개 전담반으로 구성하여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했다. 고질적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차량, 건설기

계, 각종 채권을 조사하여 신속한 입찰과 공매 조치를 실시했다.

특히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보조사업에 체납자가 선정되는 것을 제한하는 한편 각종 대금지급시 실시간 체납확인시스템을 가동하여 342건 2억6천만원을 징수했다.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5명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체납 자동차에 대한 강력한 번호판 영치를 통해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

했다.

또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한 지방세 성실납부 우수마을을 6곳을 선정, 사업비 4천만원을 지원했다.

정기분 세목납기내 납부자 추첨을 통해 부여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한편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금융거래우대 및 관광지 무료입장, 광영주차장 무료이용 등 서비스를

지원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2017년에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납부유예 및 분할납부로 회생 기회를 제공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속적인 우대 정책을 통해 건전한 납세 분위기로 정착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부여=이정복기자

법률홈닥터 4년 연속 지역거점기관으로 선정

논산시, 취약계층·서민들에게 법률 복지서비스 제공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2017년도 법률홈닥터 거점 기관으로 2014년, 2015년, 2016년에 이어 4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2017년에도 법률홈닥터 변호사 1명을 시장 민원실내 법률상담실에 배치해 서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률홈닥터' 제도는 법무부와 논산시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률홈닥터가 지역거점기관에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변호사 1명이 사정 원스톱민원원과 법률홈닥터 법률상담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주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논산시 법률홈닥터인 김수겸변호사는 매주 목요일 종합사회복지관에 출장해 신청까지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에게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논산시 법률홈닥터는 취약계층 및 법률복지 사각지대 주민들에게 법률상담, 그 밖에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 소송 수입 없이 즉시 제공 가능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서비스 제공건수는

959건으로 면접상담 689건, 전화상담 158건으로 나타났다.

상담형태로는 민·가사 상담이 684건으로 전체 80%를 차지했으며, 그의 형사상담 89건, 행정상담 52건, 법률취약계층으로 대상으로 지원하는 법률문서 작성도 74건에 달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법률구조와 복지인프라를 연계한 법률복지망 구축으로 시민들에게 편리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해 법률보호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해 법률홈닥터인 김수겸변호사는 매주 목요일 종합사회복지관에 출장해 신청까지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에게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법률홈닥터는 현재 전국 60개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돼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구조 알선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이용가능하다.

법률홈닥터 상담 예약 및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법률상담실(041-746-6044)로 문의하면 된다.

서천군 성탄절 맞아 케이크 제조·판매업 점검

서천군군수 노박래는 군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성탄절을 위해 케이크 제조·판매업체 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오는 23일까지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성탄 및 연말을 맞아 선물 등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케이크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성 확보로 식품위생사고를 미

연에 방지코자 지도점검을 펼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케이크 진열대(쇼케이스) 내부 위생상태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제조 여부 ▲유통기한 임의 연장 및 변조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경미사항은 시장명령을 통해 개선하고 법규위반 등 중대사항은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특별관리대상업소로 지정, 지속적으로 이행부담을 점검하게 된다.

이문영 위생팀장은 "성탄절을 맞아 시중에 소비되는 케이크의 안전한 공급을 통해 식품위생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즐거운 성탄절을 맞



을 수 있도록 식품안전문화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서천=김태선기자

엄사 2리 경로당 준공식 가져

계룡시, 어르신들 휴식장소·문화 공간으로 활용

계룡시(시장 최홍욱)는 지난 16일 최홍욱 시장을 비롯한 지역 인사 및 마을주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사 2리 경로당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을 갖춘 엄사 2리 경로당은 총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면적 86㎡ 규모의 건축물로 방 1개, 거실, 주방, 화장실, 다용도실 등을 갖추고 있다.

그동안 엄사 2리는 경로당이 없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마을회의 및 행사 장소로 사용하는데 많은 불편

을 겪어왔다. 이번 경로당 준공으로 마을 주민들은 넓고 깨끗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편안하고 인력한 휴식장소 제공은 물론 마을 회의 및 다양한 여가활동이 가능한 장소로 사용될 예정이다.

시는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등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경로당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엄사 2리 경로당 토지 소유주인 류병진씨는 주민들을 위해 경로당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해 감동



을 주고 있으며, 이날 최홍욱시장은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최홍욱 시장은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추운 겨울을 따뜻하고 재

미있게 보낼 수 있게 되어 안심이 된다"며 "경로당 준공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보급자리 뿐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화합의 터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여군 한 해 마무리하는 다채로운 행사 열어

제야의 종 타종행사·성홍산해맞이 등 연일 행사 열려

부여군군수 이용우는 2016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열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오는 24일에는 아이들에게 신나는 크리스마스를 선사할 야외 스케이트장과 눈썰매장이 금성산 자락에 위치한 굿뜨래헬빙마을에서 개장한다.

1천300㎡의 면적과 35m의 슬로프 길이를 자랑하는 야외스케이트

장과 눈썰매장은 지난해 보다 훨씬 넓은 공간과 우수한 빙질로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연말을 맞아 오는 30일 종무식에서는 올 한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민간인과 군정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산하공직자를 대상으로 유공자 표창을 갖고 수상자들을 격려한다.

제야의 종 타종행사 열려

2016년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부여군 100주년을 기념하여 군민들의 손으로 만든 백제대종 앞에서 군민의 안녕과 부여군 발전을 염원하는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갖는다.

제야의 종 행사는 밤 11시부터 종남극악단이 참여하는 퓨전국악, 가야금 연주와 흥보대사 박은주의 전자바이올린 공연이 펼쳐진다.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33번의 타종과 신년메시지가 담긴 소망풍선 날리

기 행사를 진행하여 아쉬움을 달랠 예정이다.

새해 첫날인 1월 1일 오전 6시 30분부터는 임천면 성홍산 기림성에 시이우군수를 비롯한군단위기관단체장, 국회의원, 주민, 관광객 등 3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7 성홍산해맞이' 행사가 열린다.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맞아 희망찬 2017년 한해의 무사안녕과 새해소망을 기원하는 신년해맞이 행사는 새해소원쓰기, 훗불기원, 새해 소망 기원제, 해오름공연, 해맞이 카운트다운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동 정
순회모금 행사

 구분영 천안시장은 20일 오전 11시 동남구 삼룡동에서 열리는 남부종합복지관 건립공사 기공식에 참석하고,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희망2017 나눔캠페인 천안시 순회모금 행사에 참석.

효성택시 운영 협약식

 최홍욱 계룡시장은 20일, 오후 2시 계룡시청 집무실에서 열리는 효성택시 운영 협약식 참석.

송년의 밤

 노박래 서천군수는 20일 오전 11시 30분 한산면 죽동리에서 열리는 죽동경로당 준공식에 참석, 오후 5시 군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2016년 제3차 서천사랑장학회 총회에 참석하고 6시 30분 명웨딩홀에서 열리는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는 송년의 밤에 참석.

머릿돌 제막식

 이용우 부여군수는 20일 오후 4시 20분 부여읍사무소에서 열리는 부여읍 행정복지센터 머릿돌 제막식에 참석.

서천군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탁월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지방세수 확충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 활동으로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경진대회'에서 충남도 군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군은 지난 1월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 수립을 시작으로 상·하반기 체납액 일체정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 체납자 징수 담당제, 광역 징수기동팀, 관허사업제한, 체납자의 미상속 부동산 대위징기 및 공매 등 연중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이월체납액 징수를 부문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냈다.

납부 의지가 없는 지방세 체납자 44명에 대한 부동산공매, 체납차량 자체 공매 20대, 253대의 번호판 영치 등으로 1억4천4백만원(목표액 대비 135.9%)을 징수했다.

특히, 한국신용평가정보(주)의 『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활용하여 인터넷 상으로 체납자의 주거래은행, 채무불이행정보, 신용조회정보, 매출처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하여 통장입류를 실시 하는등 체납자 신용도에 따른 맞춤형 체납자 관리를 통해 높은 체납세금 징수율을 기록할 수 있었다.

이성구 재무과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고질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체납 처분을 다각적으로 시행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체납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서천=김태선기자

1회 가격으로 최대한 없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동정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김동일 보령시장 = 20일 오전 10시 보령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오전 11시 보령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19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오후 1시 성주면 개화3리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보창산업과의 1사 1촌 자매결연 행사 참석, 오후 2시 시장실에서 열리는 민원상담의 날 운영, 오후 6시 대호호텔에서 열리는 웅천읍 체육회 송년회, 오후 6시 30분 웨스트피아에서 열리는 원동지음방방대장 이·취임식 참석.

미국 우리라디오와 전화인터뷰



이완섭 서산시장 = 20일 오전 10시 시장실에서 미국 우리라디오와 전화인터뷰, 오전 10시 30분 시장실에서 개최되는 현대오일뱅크 쌀 기탁식에 참석, 오전 11시 서산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되는 2016년 송년 기자 간담회에 참석, 오후 2시 시장실에서 개최되는 한문협회 서산시지부 불우 이웃돕기 성금 기탁식에 참석, 오후 6시 30분 서산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간담회에 참석.

아트피 치유마을 현장행정



박동철 금산군수 = 20일 오후 2시 군북면 아트피 치유마을에 대한 현장행정을 실시.

운영지침 전달연수



조민행 보령교육장 = 20일 오후 2시부터 보령교육지원청 제1회의실에서 진행되는 2017학년도 초등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 전달 연수에 참석.

광고문의

(042)538-3030

AI 재난안전대책본부 본격 가동

서산시, 긴급방역체계 가동·24시간 비상근무태세 구축 등 적극 대응 나서

서산시가 AI 발생을 막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완섭 서산시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10개 분야 32명으로 구성된 실무반을 편성해 상황 종료 시까지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게 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18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비상근무자들을 격려하며 "우리 시 방역체

계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전 공무원이 철저히 청거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가금 농장 내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에 의해 AI가 확산될 수 있다"며 "가금 농장 내 방역 소독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농가 안 내 및 계도활동을 철저히 해줄 것"을 지시했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부

터 예천동 우시장에 거점소독장을 설치해 지역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양대동에도 이동통제 조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 천수만 철새 도래지인 간월호 주변에 항공 방역을 실시하는 등 청정서산을 지켜내기 위해 AI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산=김정한기자

우리/동네



금산군, 군북면 체육센터 준공 금산군은 지난 17일 군북면 현상에서 박동철 군수를 비롯한 이상현 군의장, 주민, 축구동호인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북면 체육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군북면 두두리 448번지에 위치한 체육센터는 4821㎡의 면적에 전천후 활용이 가능한 실내형 체육관(1004㎡)으로 지어졌다. 사업비는 총 12억원이 투입됐으며 1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쳤다. 부대시설로 사무실과 화장실을 갖

보령시, 선제적 방역으로 고병원성 AI 차단 총력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24시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보령시는 AI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 발령됨에 따라 기존 운영 중인 AI 방역 대책본부를 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고, 24시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선제적 방역으로 AI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지난 16일 부시장 주재로 AI 대처상황 및 수습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사전 유입 차단과 조기 종식을 위해 부서별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병원성 AI는 현재 7개 시도, 26개 시군에서 발생해 확산농가만 157호, 살처분은 266호, 1140여 만수에 달함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24시간 운영해 온 거점소독소 2개소(청소, 웅천)를 추가로 확대 운영하고, 인부 6명 외에 추가로 공무원 3명씩을 편성하는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또 가금농가 책임 공무원제를 운영해 매일 25명의 공무원이 농가별 이상유무를 유선으로 확인하고, 소

독 차량 3대를 가동해 순회 소독을 실시하며, 축협 공동방역단에서도 소규모 농가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가금농가 80호에는 생식회 87톤, 약품 5000리터를 공급하는 등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금농장 소독실대 전수 조사로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철동 방역을 이끈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를 통한 발생상황과 방역조치를 수시로 공유하고 전문가와 축산농가가 참여하는 가족방역협의회 개최, 야생철새 차단 등 예방 및 홍보에도 주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보령에서는 AI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시에서는 예방 강화와 소독, 대비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니, 가금농가에서는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통제로 자율적이고 철저한 차단방역과 함께, 소독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김태성기자

2017 나눔 캠페인 집중모금

보령시는 지난 16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으로 기관단체와 기업,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집중모금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행사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 장애인 등 다양한 시민들이 따뜻한 지역 사회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동참을 아끼지 않고 나섰다. 앞서 시는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을 전개해 내년 1월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3억 원의 목표를 모금할 중에 들어갔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보령 시민들의 더욱 많은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선 것이다. 지난 15일 기준 3억 원의 성금을 모금했고, 16일에는 집중 모금활동으로 3797만 원을 모금해, 모두 3억 3797만원으로 3억 원의 목표금액 대비 113%로 조기에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보령시 공직자들도 '아름다운 1% 나눔 운동'으로 올 한 해 동안 모은 1307만 원과 공직자로 구성된 음악 동아리 '불협화음'은 한 해 동안 활동으로 모은 성금 200만원을 기탁하며 릴레이 나눔 행렬에 동참했다. 시는 지난해 추진한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서는 현금 5억 2053만 원, 물품 2억 2284만 원 등 모두 7억 4337만원을 모금해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달했고, 아동·청소년 1억 7980만 원 ▲여성·다문화 5684만 원 ▲노인 1억 2536만 원 ▲장애인 6910만 원 등 모두 10억 1267만원이 보령지역의 사회복지기관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지원됐다. 한편, 충남도공동모금회와 함께 하는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하며, 나눔 캠페인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은 보령시청 주민생활지원과(041-930-3854)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성금을 기탁하면 된다. 서산=김정한기자

서산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만들기 '총력' 도시안전통합센터 본격 운영

서산시는 올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우선 범죄와 사고 및 태풍, 홍수, 대설 등 각종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쳐,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분산 운영되고 있는 CCTV 700여대를 24시간 통합 관리할 도시안전통합센터를 14억여원을 들여 조성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24시간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상황실을 구축하고 재난대응안전 훈련, 시민과 함께하는 읍지연습 등 실제와 같은 훈련의 실시를 통해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힘썼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서산대산공단의 직원을 대상으로 재난안전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민 안전의식 확산에도 공을 들였다. 지난 5월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352억여원 포함, 사업비 470억원에 들여 추진 중인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2018년 조성되면 분뇨,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등에서 바이오가스 생산으로 에너지원 확보는 물론 수질 개선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로 생태습지를 조성하고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등을 도입하는 등 친환경도시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관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산지역 대기오염측정소 신설 등을 추진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살기 좋은 도시의 선결조건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라며 "자연과 문화, 사람의 가치가 어우러진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새내기공무원 직무역량강화 교육

금산군, 한시간여 특강 통해 공직자의 올바른 마음가짐 확립

금산군이 올해 입사한 새내기 공무원 36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앞으로 금산발전을 선도할 새내기공직자로서 직무수행능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현직 선배공무원 중 기획, 예산, 인사, 회계, 문서관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공직자가 강사로 나서 이론중심이 아닌 사례 중심으로 실무 위주의 교육이 이뤄져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박동철 군수의 한시간여 특강을 통하여 공직자의 올바른 마음가짐을 확립하고 공직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으며, 건강누리관, 청소년미래센터, 가족통합지원센터, 인삼약초시장 등 금산군 주요 현장 돌아보기를 통해 우리 고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박동철 군수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직에 입문한 새내기 공무원들이 금산군 공무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노력을 통해 금산의 일꾼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금산=전정만기자

현대식 전통 가옥

1 친환경적이다 (Eco-Friendly)

콘크리트가 아닌, 친환경적인 황토 벽돌과 나무골조를 사용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느낌과, 정서적인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황토가 가지고 있는 수억 마리의 미생물이 인체에서 나오는 독을 제거하고 우리 몸의 생리작용을 활성화 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토피 등의 피부질환과 건강 관리에도 탁월한 효능을 보입니다.

MODERN TRADITIONAL HOUSES

BEST PLAN

옛 한국 전통 가옥의 장점과 현대적인 아름다움 더하다.

Modern Traditional Houses

"전통 가옥"

2 난방비 절약 (Economizing)

흔히 말하는 황토 집 온돌방(황토방)이 바로 이 전통 가옥입니다. 추운 겨울날, 아궁이에 불을 때면 집을 따뜻하게 하는 기술과, 구조적 특징으로 갖춘 습도와 온도조절 기능 그리고 공기 청정기능으로, 더운 날엔 시원하게, 추운 날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면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서양의 벽난로 같이 과열되어 인화되는 위험성도 없고 보일러나 벽난로같이 동파와 고장도 별로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3 전통적인 미 (Traditional)

한옥은 기둥 위에 '도리'라는 부재를 올리고, 그 위에 '서까래'라는 부재를 올려서 지붕의 구조체를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생긴 처마의 형태가 구조적 아름다움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기와의 전통성과, 구조제로 쓰인 나무와 황토의 색깔, 그리고 흙 내음이 우리나라 전통 향수와 아름다움을 풍깁니다.

Best Plan
010.7472.4972
pjmin1456@hanmail.net

BEST PLAN. 대표. 박정호

FAX. 042. 624. 1204

H.P. 010.7472.4972

pjmin71456@hanmail.net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454-6번지 2층

오늘의 하이라이트

▲ 언제나 봄날 (MBC 오전 7시50분)



현준(박정욱)은 면식(선우재덕)과 한길(최상훈)의 출생이 바뀌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손을 써보려 하지만 누군가의 제보에 의해 언론에 알려지게 된다. 면식의 비밀을 알게 된 종심(최수민)은 혼자 살겠다며 나가버리고, 면식(선우재덕)네 가족들은 인정(강백이) 후계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데...

▲ 저 하늘에 태양이 (KBS2 오전 9시)

정호(이민우)는 인정(윤아정)과 함께 수지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린다. 민우(노영학)는 수지(유지)

연가 의식을 갖게 될 것을 걱정한다. 한편, 서연(하지은)의 제략으로 하차위기를 맞은 인경은 영화사로 향하고, 병실에서 자릴 비우게 되는데...

▲ 낭만닥터 (SBS 오후 10시00분)



서정은 신화장 수술 퍼스트가 되기 위해 악착같이 인공심장 관련 공부와 훈련을 하고... 드디어, 김사부는 신화장 수술의 퍼스트를 발표하는데! 한편, 메르스로 의심되는 환자들이 돌담 병원에 들어와 동주는 응급실 폐쇄 결정을 내리는데...

케이블 명화

▲ 도둑들 (OCN 오후 2시2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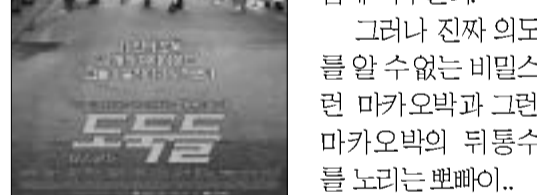
한편으로 활동 중인 한국의 도둑 뽀빠이와 에니콜, 씹던감, 잠파노. 미술관을 터는데 멋지게 성공한 이들은 뽀빠이의 과거 파트너였던 마카오박이 제안한 홍콩에서의 새로운 계획을 듣게 된다. 여기에 마카오박이 초대하지 않은 손님, 감옥에서 막 출소한 금고달이 뽀빠이가 합류하고 5명은 각자 인생 최고의 반전을 꿈꾸며 홍콩으로 향한다.

홍콩에서 한국 도둑들을 기다리고 있는 4인조 중국도둑 쉐, 앤드류, 줄리, 조니. 최고의 전문가들이 세팅된 가운데 서로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 한국과 중국의 도둑들.

팬텀이 흐르는 긴장감 속에 나타난 마카오박은 자신이 계획한 목표물을 밝힌다.

그것은 마카오 카지노에 숨겨진 희대의 다이아몬드 <태양의 눈물>.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계획이지만 2천만 달러의 달콤한 제안을 거부할 수 없는 이들은 태양의 눈물을 훔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그러나 진짜 의도를 알 수 없는 비밀스런 마카오박과 그런 마카오박의 뒤통수를 노리는 뽀빠이..



▲ 미션임파서블2 (채널CGV 오후 7시30분)

러시아의 생물공학자인 네코비치 박사(Dr. Nekhorovich: 레이 드 세르베드비치)는 어느날 IMF(Impossible Mission Force)의 요원인 이단 헌트(Ethan Hunt: 톰 크루즈)에게 구원을 요청한다. 그는 그리스 신화를 인용한 '키메라'라는 바이러스를 만들어 냈고, 또한 이를 억제할 벨레로폰도 만들어 냈음을 밝힌다.

그러나 시드니에서 질병센터가 소재한 아틀란티아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한 것은 헌트도 변장한 테러리스트 엠브로즈(Sean Ambrose: 더그레이 스콧)였다. 엠브로즈는 박사에게서 벨레로폰을 탈취한 후 비행기 추락사고를 가장하여 그를 살해한다. 그러나 엠브로즈는 정작 필요한 악성 바이러스인 키메라가 없었으므로 그의 작전은 반쪽 성공일 뿐이었다.

이 사건으로 IMF측에서는 엠브로즈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헌트를 불렀고 그는 키메라라는 것이 인플루엔자, 즉 유행성감기를 없애기 위한 완벽한 치료제인 벨레로폰을 유전자적으로 조합하다가 부수적으로 만들어진 끔찍한 악성 바이러스라는 사실을 알아낸다.

케이블 & 위성 방송

▶YTN (02)398-8000 ▶스카이라이프 1588-3200 ▶한국케이블 TV방송 협회 060-398-3355

Table with 4 columns: 영화·오락, 스포츠·레저, 뉴스·다큐, 음악·애니.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times.

프로그램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TJB/SBS, CMB, and EBS. Lists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across different channels.

고어대사전 출간 '조선시대 한글 문헌들을 집대성하다'

선문대 중한번역문헌연구소 소장 박재연 교수

22만여 개의 표제항과 69만여 개의 용례 풀이한 옛말 사전



선문대총장 황선조 중한번역문헌연구소 소장 박재연 교수(중어중국학과, 58)가 2006년부터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10여년의 작업 끝에 22만여 개의 표제항과 69만여 개의 용례를 풀이한 옛말 사전 '고어대사전(선문대학교 출판부)'을 출간했다. 한글창제이후 우리말 고어 한자리에 무려 21백여 종 20,000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이 사전은 지금까지 간행된 고어사전류가 대부분 15세기와 16세기의 중세국어 시기의 목판본과 활자본 등 판본으로 간행된 문헌들에 집중하였던 점을 보완하여 한글 창제이후부터 20세기 초까지의 우리말 고어들을 한자리에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기존의 고어사전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폭넓은 문헌자료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점도 차별화된다. 목판본, 활자본은 물론이고 필사본, 연필자본까지 모든 자료를 아꼈으며, 음식조각, 의학서, 회화서, 역술서, 역사서, 소설, 희곡, 가사, 시조, 기행문, 연가, 야담, 자서, 유서, 사전, 어휘집, 지리서, 교과서, 고문서, 문집, 신문, 교과서 등 그 장르도 다양하다. 사전에 활용된 문헌은 약 500여 종 4,000여 책, 연간과 고문서도 200여 점에 달한다. 특히나, 궁체나 정자체가 아닌 흘림체로 쓰인 필사본 문헌들은 필사 시기도 없을뿐더러 관독하고 해독하기가 어려워 사전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고어대사전은 필사본 자료들도 대거 수용하여 기존의 고어사전들에서는 빈약했던 근대 국어 어휘와 예문들을 폭넓게 수록하였기 때문에 새로 등재한 어휘와 차용어들도 있다. 황선조 총장은 "어려 해에 걸친 각고의 노력 끝에 보는 결실이며 사전의 학문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고어대사전은 국어국문학 및 국학 각 분야에 종사하는 학자는 물론이고 근대 국어 자료에 관심을 갖는 학자와 대학원생들에게 실용적인 공구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구입문의: 선문대학교 고어대사전 담당 041-530-8021 이산=리광주기자

초대형 재난 블록버스터

'판도라' 300만 관객 돌파



뜨거운 가족애와 감동으로 개봉 후 11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며 올 겨울 흥행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영화 <판도라> > [감독: 박정우, 제작/배급: NEW, 제작: ㈜CAC엔터테인먼트, 공동제작: ㈜시네마파크]가 18일 오후 4시 7분 300만 관객을 돌파, 브레이크 없는 흥행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갈수록 거세지는 입소문으로 개봉 후 11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거침없는 흥행 질주를 이어가고 있는 영화 <판도라>가 개봉 12일째 누적 관객수 3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영진위입장권 통합전상방 배급사 집계 따르면 <판도라>는 개봉 12일째인 18일 오후 4시 7분, 누적관객수 300만 443명을 기록했다. 영화를 본 관객들의 호평 세례는 물론, 재난 영화로는 이례적으로 눈물 인종상까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며 개봉 3주차까지 이어지는 흥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판도라>는 국내 최초 원전을 소재로, 있어서만 안 될 재난 속 없어서는 안될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와 믿고 보는 배우들의 명품연기, 뜨거운 가족애와 감동까지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는 다채로운 매력으로 남녀노소 전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국회의원들을 비롯 각종 환경단체,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의 단체 관람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전국에 불어닥친 <판도라> 신드롬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천안여상, 성과연계형 장학사업 전국 최우수학교 선정

금융, 경제 특성화 교육 분야...2학년 흥인지 학생 전국 1위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교장 김주업은 지난 12월 16일 부산 한국예탁결제원 본원에서 열린 2016년 성과연계형 장학사업 전국 최우수 학교에 선정되며 총 1130만원의 상금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예탁결제원 나눔재단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전국 상업계열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경제, 경영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 국가공인 민간인증시험에 응시하여 우수한 성과를 올린 학생과 학교에 장학금지원금과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천안여상 학생들은 지난 11월 26

일 실시된 틴매경TEST 시험에서 95.5를 받으며 전국 1위 성적을 올린 흥인지(2학년) 학생을 비롯하여 9명의 학생들이 최상위권에 오르며 전국 최우수학교로 선정됐다. 이러한 교육열은 높은 취업률로 이어져 천안여상은 현재까지 230여 명의 학생들이 취업에 성공하며 취업 명문학교로 굳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천안여상 김주업 교장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통해 천안여상의 수준 높은 교육력을 전국적으로 알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충남도교육청,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협의회 개최 19일 내포 청사에서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상설모니터단 운영 결과 평가 및 2017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한 상설모니터단 협의회를 개최했다.





충남도조시 방역대책 상황실 및 현장방문 격려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이하 충남도조)은 충남도에서 A가이따라 발생함에 따라 도가치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조 송지영 위원장과 임원들은 19일 도시방역대책 상황실과 가축위생연구소를 방문하여 24시간 방역 상황유지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직원들을 위로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중구, 대종로 보도정비사업 완료 중구는 부사거리부터 석교동주민센터 구간 보도 노후화로 인한 주민통행 불편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보도정비 사업을 전개해 지난 17일 완공했다.



한밭대에 초원 대표 후원의 집 장학금 기부 약정 한밭대학교(총장 송하영)는 19일 오후 3시 초원(대전 수동골로 소재) 전미정 대표로부터 1200만원의 후원의 집 장학금을 기부 약정 받았다.



대신학교, 삼성SDS 함께하는 사랑나눔 행복산타 Happy Day 행사 대신소년원(원장 오영희)은 20일 삼성SDS 임직원들이 연말을 맞아 학생들을 위한 선물을 마련하여 전달하는 "사랑나눔 행복산타 Happy Day" 행사를 개최했다.



충청우정청, 사랑의 도시락 배달 충청지방우정청(청장 이승재) 직원 10여명은 지난 16일 둔산종합사회복지관에 독거노인 등 연말 소외이웃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을 배달했다.



음분면 이웃돕기 성금모금 행사 열려 지난 16일 주민자치센터에서 희망2017 나눔캠페인 이웃사랑 성금집중모금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음분면 관내 다수의 기관·단체·기업에서 모금 활동에 참여하여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섰으며,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까지 저금통을 가져와 성금 모금에 참여했다.

우송정보대학 평생교육원, 국내최고의 프로 색소폰니스트 3인 초청 3인3색 색소폰 특강 및 콘서트 성료

우송정보대학(총장 정상직) 평생교육원이 17일 오후 2시부터 저녁 9시까지 국내최고의 프로 색소폰니스트 3인 초청 "색소폰 전국투어 행복나눔 3인3색 특강 및 콘서트"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국내 최고의 명품 색소폰 연주자 양성 사관학교를 지향하고 있는 우송정보대학 평생교육원은, 국내 최초로, 최고의 색소폰니스트 김정음, 광재성, 이종우 프로를 초청하여 최근 음악 애호가들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색소폰 관련 실전곡 연주기법 향상을 위해 특강과 콘서트를 동시에 개최한 것이다.



본 행사<1부> 3인3색 실전곡 특강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되었는데, 광재성 교수의 "동백 아가씨", 이종우 교

수의 "그 겨울의 찻집", 김정음 교수의 "연인"에 대해 1시간씩 집중적으로 연주기법 전수가 이뤄졌고, 직접 편곡한 실전곡 악보도

제공되었다. <2부> 3인 3색 콘서트는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었는데, 국내최고의 김정음, 광재성, 이종우 색소폰니스트가 주옥같은 레퍼토리를 선사하여 깊어가는 겨울밤이 열기로 가득했으며, 참석한 관객을 사로잡았다.

한편 이에 앞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현재 우송정보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수강중에 있는 "색소폰 연주기법 1년과정 1학기 개인발표회"를 갖는 등 하루 종일 색소폰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다.

이정복기자

● 동정 ●

시군지회장회의



김동구 충청남도새마을회장은 20일 천안시 새마을회관에서 시군지회장회의를 주재.

대전권대학발전협의회 21일 2016 하반기 회의 개최

대전권대학발전협의회(공동회장 박노권 목원대총장)는 2016년 하반기 회의를 21일 오전 7시 인터시티호텔 5층 사파이어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균형 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위원회 확대와 공동의장을 선임하고 2017년 지역 대학 지원을 위한 계획을 심의한다. 이어서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을 초청, 간담회를 갖고 대전시와 지역소재 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해 후속적 협력관계를 모색한다.

대학들은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제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타 지방권역에 비하여 다수가 하위그룹으로 평가되어 재정지원 제한을 받고, 많은 수의 학생정원을 감축하는 등 충청권역 홀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제2주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역대학과 국회의원, 자치단체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차기 신입 공동의장을 선출하고, 내년에 개최될 아시아태평양 도시정당회의 청년포럼에 대한 대학의 협조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김태선기자

충남대 강병수 교수

대전학연구회 회장 선임



충남대 행정학부 자치행정학과 강병수<사진> 교수가 대전학연구회 회장에 선임됐다.

대전학연구회는 12월 16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만장일치로 강병수 교수를 신임 회장에 임명했다. 임기는 2년이다. 대전학연구회는 2004년 2월에 출범하였으며 대전지역에 대한 연구를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설립됐으며, 강병수 교수는 2010년 '대전학 입문'을 집필하기도 했다.

강병수 교수는 "대전 시민들이 정체성을 찾고 함께 공동체의 가치를 공유하며 미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전학'의 패러다임을 만드는데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 부고 ▲ 송호현(대전 유성구 자치행정담당)씨 모친상 = 19일 오후 1시 30분 별세, 빈소: 유성한기초병원 3층 3호실, 발인: 21일 오전 9시 30분, 장지: 대전정수원(서구 정림동) 연락처: 정례식장 ☎042611-9700



'희망 2017 나눔캠페인' 모금 행사

아산시 온양2동, 지역 주민들 적극 참여... 성금 기부

아산시 온양2동(동장 김형관)은 지난 16일, 온양2동 주민센터에서 '희망 2017 나눔캠페인' 집중모금 행사를 실시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사에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남·여)회, 적십자, 바르게살기위원회, 행복마을추진단 등 관내 기관·단체를 비롯해 지역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 성금을 기부했다.

또한, 적십자회원들이 따뜻한 차

와 음료를 대접해 행사장의 훈훈함을 더했으며 600여 만원의 성금이 모아져 충남공동모금회를 통해 도움이 절실한 가정의 긴급지원 등 복지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게 됐다.

김형관 동장은 "모금행사에 동참해주시는 지역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리며, 참여해주신 손길이 어려운 가정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아산=리향주기자



'2016 콘텐츠실무협의회' 개최

건양사이버대학교, 21개 사이버대학이 한자리 모여

원격 수업 역량 강화와 개발 노하우 정보 공유를 위해 21개 사이버대학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이하 원대협)가 후원하는 '2016 콘텐츠실무협의회'가 지난 16일 오후 2시 건양사이버대학교 2층 어니스트홀에서 열렸다.

실무협의회는 21개 사이버대학의 콘텐츠 현황 및 개발에 대한 정보공유 및 표준 콘텐츠개발 시스템에 대한 논의와 사이버대학의 화합과 상생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실무협의회에는 실무자 이외에도 원대협 김영철 사무국장, 건양사이버대 김용덕 부총장, 김은미 교학처장, 황해정 기획처장, 이진경 콘텐츠품질관리센터장 등 보직자

를 포함한 40여명의 실무자가 자리했다. 각 대학에서 모인 실무자들은 미래주도형 교육 콘텐츠 개발, 현장감 있는 학습 영상 구현 방법, 콘텐츠 통합 개발 시스템 구축, 모바일 지원 서비스 강화 방안 등 콘텐츠 품질과 우수성을 확보해 사이버대학의 대외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건양사이버대 정기진 담당은 "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사이버대학이 넘어야 할 또 다른 목표가 설정된 것 같다"며 "콘텐츠 템플릿, 학습영상, 콘텐츠개발 통합 시스템 구축 등 학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대학 실무자들과 공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한화토탈 "따뜻한 나눔 따뜻한 밥차"

서산 따뜻한 밥차 인기속 마무리



한화토탈(대표이사 김희철)이 지난 7월 시작한 따뜻한 밥 차가 한해를 마무리 했다.

"따뜻한 나눔 따뜻한 밥차"라는 이름으로 지역사회에 자리면서 19회에 걸쳐 790여 봉사자들이 참여하여 총 3,900여명에게 급식을 제공

하여 처음이지만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1+3사랑나눔 4회와 소속단체 행사 지원 2회 등 첫해이면서도 나름 성취한 운영으로 평가받으며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서산=김정한기자



세종시교육청, 교육복지협의회 위원 위촉식 개최 지난 19일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교육복지협의회 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교육복지협의회는 교육복지지원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사업 기본계획 ▲사업학교 지정 ▲사업 관계자 연수 등 전문성 신장 ▲사업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

세종시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

신임 김종환 지역본부장 취임



사진은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업종별 협동조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지역본부로서 자리매김 하겠다"

19일 취임한 신임 김종환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55, 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신임 김종환 본부장은 한양대를 졸업하고 1987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에 입사해 대전충남지역본부 부장, 산업인력팀장, 인천지역본부장, 서울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10월 취임해 14개월간 지역본부를 이끌었던 前 양천회 본부장은 분부태스크포스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병배기자

기고

촛불이 만들어 낸 새 역사



강병길

목원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과 교수

촛불은 전통적으로 의례와 종교적 의식에서 사용되면서 세속을 초월한 숭고한 불빛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에서는 대립절(Advent:성탄절을 기다리는 주간의 주일 촛불의 의미)을 맞아 첫째 주는 소망(Hope), 둘째 주는 평화(Peace), 셋째 주는 기쁨(Joy), 넷째 주는 사랑(Love)으로 주마다 해당하는 촛불을 켜고, 첫째 주부터 셋째 주는 파란색 혹은 보라색 초를, 넷째 주는 핑크색 초를 켜다. 그리고 성탄절이 되어서는 가운데에 아기 예수의 촛불을 켜다.

대립절의 네 개의 초가 의미하는 것처럼, 절대 절명의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에 대립절에 밝히는 촛불

이 밝혀져 우리들의 마음에도 소망, 평화, 기쁨, 사랑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온 누리에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가득함으로 넘쳐나기를 소망해 본다.

이번 촛불 집회는, 촛불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를 통해 국민 또는 합집단의 의사표현의 한 장르가 되었다. 촛불은 전통적으로 의례와 종교적 의식에서 사용되었던 세속을 초월한 숭고한 불빛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촛불은 본래의 이미지와 상징성을 통해 국민의 열망을 대변하는 불꽃이 되면서 사회적 통합과 정의를 향한 의지를 대변하는 장치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촛불을 말할 때 빠뜨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자기의 희생을 뜻한다. 촛불은 고체인 자신의 몸을 녹여 액체로 만들어 스스로의 기운으로 빛을 밝힌다. 사람들이 촛불을 단순한 불빛으로만 바라보지 않는 것도 촛불은 자신의 몸을 녹여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는 숭고함 때문일 것이다.

촛불이 전국에서 타오르고 있다. 불의한 지도자와 병든 세상에 대한 분노,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에 대한 열망이, 작고 가녀린 촛불들이 모여 자신의 몸을 녹여 드넓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변해, 더럽혀진 세상을 태워 소멸시켜 버릴 수 있는 불길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작고 고독한 불꽃들이 모여 거대한 빛의 물결을 만든 것이다.

바람이 불면 깨질 것 같은 촛불이 모여 최고의 권세 자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불의한 대통령을 탄핵하여 만민에게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힘으로 발휘 하였다, 탄핵을 할 테면 해보라는 대통령의 오기를 촛불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불어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어 버리는 위력을 과시했다. 한 점의 불씨가 모여 더 번지는 거대한 불길은 그 누구도 꺼버릴 수도, 막을 수도 없다는 진리를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어쭙 정치현실을 보면 율화봉이 터지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많이 성숙되어 있다. 세계 언론이 주목했듯이, '박근혜 탄핵'을 가져온 한 달여의 촛불 시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건이라며 외신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 높은 민주주의의식을 주목한다. 전 과정이 비폭력으로 진행돼 정권을 탄핵까지 몰아붙인 '촛불'은 다른 나라에 시민운동의 한류(韓流)로 전이되지 않을까 싶다. 촛

불 시위는 무엇보다 '광장 민주주의'의 실현이었고, 축제 같은 '즐거움 혁명'이었다.

하지만 촛불집회가 이토록 정연하고 성숙하게 된 것을 두고 마냥 반길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때 정권마다 케이트와 비리, 국가적 고동이 있었기 때문에 집회가 정례 성을 가지게 되었고, 그 반복성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수준에 촛불시위문화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국가가 보다 청렴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지 않았다면 이 추운겨울 밤 국민들이 촛불을 밝히며 광장으로 모이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앞으로는 국민들을 힘겹게 하는 저급한 정치수준과 부패와 부정이 사라져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어 줄 것을 정치권에 당부한다. 또한 이제는 여,야 모두가 힘을 합하여 이 난국을 잘 수습하고 조속히 시국(時局)을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이번 박근혜정부의 최순실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서 우리정치권은 큰 교훈을 얻어야 한다. 과거의 잘못을 수정할 수 없지만 과거의 잘못과, 똑 같은 과오를 또다시 범하지 않도록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난세에 주권자인 온 국민이 모두 영웅이다.

사설

연말 보이스포싱 주의해야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 돈을 뜯어내는 대출방지형 보이스포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니 걱정이 크다.

금융당국은 자금 수요가 많은 연말연시에 더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대출방지형 보이스포싱 피해 규모는 1천179억원이었다. 월 평균 1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는 셈이다.

경찰·검찰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포싱 피해액은 지난해 월평균 117억원에서 올해 들어 45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그러나 대출방지형 보이스포싱의 월평균 피해액은 지난해 87억원에서 올해 107억원으로 증가했다.

대출방지형은 대출을 해주겠다고 사기범 제재(대포통장)로 보증료, 수수료 명목의 송금을 유도한다.

금융회사 사칭 수법이 무척 정교해 실제 대출받고인지 보이스포싱인지 구별하기 어려워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햇살론 등 저금리의 정책금융 상품으로 대출을 같이타게 해주겠다고 기존 대출금을 사기범이 지정하는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는 신종 수법이 나타나 1인당 피해 금액이 커졌다.

금감원은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권유하면서 어떤 명목이든 입금을 요구하면 100% 사기라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은 반드시 금융회사 영업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연말연시에는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서민들의 사정을 이용한 보이스포싱 시도가 많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중소기업도 육아휴직 보장해야

여성은 물론이고 남성들도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서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수가 처음으로 8만 명을 돌파했다나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인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년보다 425% 늘어나 5000명에 육박했다. 그러나 아직도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6 일·가정 양립 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는 8만 732명으로 1년 전보다 1만541명(13.7%) 늘었다.

휴직자를 성별로 구분하면 아직까지는 여성(94.4%)이 남성(5.6%)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남성 육아휴직자의 증가세가 훨씬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4874명으로 2014년보다 425% 급증했다.

같은 기간 여성 육아휴직자 증가율(12.4%)의 3배 이상이다.

2011년 도입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사람도 2011년 39명에서 2015년 2061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제도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과 함께 1년 이내에 한해 주 15~30시간만 근무할 수 있는 것이다.

육아휴직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중소기업 근로자에겐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일·가정 양립 지표에서는 300인 이상 사업체 대부분에서 출산휴가(98.0%), 배우자 출산 휴가(92.0%), 육아휴직 제도(93.0%) 등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9인 업체에선 그 비율이 각각 55.1%, 34.1%, 26.8%에 그쳤다.

여성은 물론 남성들도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을 적극 활용해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건강 칼럼

최근 부상확률 스키보다 30% 높은 스노보드 즐기는 사람 늘어



김경현

대전비로세움병원 관절센터 원장

어김없이 찾아왔다. 비야흐로 스키 시즌. '겨울 스포츠의 꽃'으로 불리는 스키는 스노(snow), 슬로프(slope), 스피드(speed)의 3박자를 갖춰야만 타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에 늘 부상의 위험을 안고 있다.

최근에는 슬로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스노보드족들이 절반을 넘어섰다. 험랑험랑한 험랑 복장을 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보너들. 아직은 10대와 20대가 대중을 이루고 있지만 점차 연령대를 넓혀서고 있는 추세다. 충분한 준비운동 없이 들뜬 마음으로 스키를 타다 가는 낙상, 충돌 등 크고 작은 부상으로 관절 부위에 무리를 줄 수 있다.

최근 스키 부츠와 바인딩 기술의 발달로 다리골절 발생빈도는 예전보다 줄었으나 부츠가 딱딱해지면 서 발목은 보호되는 반면 무릎 인대 손상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즐겨 타는 스노보드에 의한 부상이 급증하고 있다. 스노보드의 경우 200번 타면 한번쯤은 부상을 입을 정도로 부상 빈도가 잦다. 스키부상은 하루 1천명당 2~5명꼴로 발생한다. 스키부상은 대부분이 넘어지면서 장비에 의해 생긴다. 따라서 충격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모자, 장갑 등 기본 장비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자신의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하는 것은 부상예방의 첫걸음이다.

초보자들은 여러 방향에서 분리되는 바인딩을 풀라 강도를 약하게 맞추는 게 좋다. 발보다 큰 스키부츠를 신지 않는 것도 지해다. 스노보드의 경우 특성상 왼발을 앞으로 내밀고 타기 때문에 왼쪽 다리 손상이 오른쪽보다 두배나 많다.

스키부상은 3시간쯤 타고난 후와 오후 3시쯤 발생빈도가 가장 높다. 피로가 가장 심해지는 시간이며, 한낮 기온상승과 햇빛으로 인해 눈이 서서히 녹으면서 스키의 회전력이 감소하는데다 땀을 많이 흘려 체력이 떨어져 위험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상 방지를 위해 헬멧, 손목패드, 무릎패드 등 여러 보호 장비를 구비하는 것이 좋고 타기 전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는 것이 부상을 줄이는 예방법이다. 스키장은 눈 때문에 자외선 반사량이 많으므로 피부 보호와 색소침착을 막기 위해서는 겨울이라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한다. 스키장에서 손발, 코끝이 동상에 걸리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도 기억해 둘 일이다.

◆스키-가장 흔한 유형은 무릎을 지탱해주는 전방십자인대 손상

스키부상 가운데 가장 흔한 유형은 무릎을 지탱해주는 전방십자인대 손상. 실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사고다. 스키를 타다 미끄러져 넘어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 억지로 몸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무릎 인대가 파열되기 쉽다. 이럴 경우 억지로 일어나려 하지 말고 그냥 넘어지면서 손을 앞으로 가져

고 다리를 모아야 한다. 엄지 손가락 쪽 인대인 무지 척추 측부 인대' 파열도 잦은 부상 중 하나. 풀을 잡은 채 넘어지게 되면 부상을 입기 쉬우므로 손이 슬로프에 닿기 전 풀을 버린다.

◆스노보드

- 왼쪽다리 부상이 오른 쪽보다 2배 정도 더 많다 -손과 팔로 방향을 잡기 때문에 손목부상이나 팔 골절도 흔하다.

스노보더들은 왼쪽 다리 인대 부상을 많이 입는다. 스노보드는 양쪽 다리를 보드에 붙이고 왼쪽 다리를 앞으로 내밀고 타기 때문에 왼쪽다리 부상이 오른 쪽보다 2배 정도 더 많다. 풀대를 쓰지 않고 손과 팔로 방향을 잡기 때문에 손목 부상이나 팔 골절도 흔하다.

다리처럼 왼쪽 팔이 오른쪽보다 많이 다친다. 부상방지를 위해 헬멧 손목패드, 무릎패드 등 여러 보호장비를 구비하는 것이 좋고, 되도록 자세를 안정적으로 굽혀 외부의 충격을 적게 받도록 한다. 한편 요즘 젊은이들이 즐겨 타는 스노보드는 부상자의 50% 이상이 초보자일 정도로 처음 탈 때 부상 위험이 크다.

■스키부상 예방 십계명

- 1. 매년 시즌이 시작될 때와 15~30회 스키를 타고난 후에는 모든 장비를 점검한다.
2. 스키 풀의 손잡이 줄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무지와 견관절 손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3. 초급자일수록 슬로프의 상태가 나쁘거나 날씨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스키를 타지 않는다.
4. 자기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선택한다. 많은 경우 실력 이상의 슬로프를 내려오거나 익숙치 않은 설

면을 내려오는 도중 부상이 발생한 다.

5. 스키장 내의 표지판을 잘 읽고, 패드들의 위치를 파악하여 응급상황시 호출할 수 있도록 한다.

6. 뒤따르는 스키어가 볼 수 없는 곳에서 갑작스럽게 정지하지 않는다.

7. 슬로프가 만나는 지점이나 사람이 많은 장소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이런 곳에서는 언제든지 정지하거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방어적으로 스키를 타야 한다.

8. 초급자 슬로프에서 고속으로 스키를 타지 않는다.

9. 음주 후, 약물 복용 후에는 스키를 타지 않는다.

10. 피로할 때에는 스키를 타지 않는다. 근육과 정신의 피로는 부상을 일으키는 위험 인자이다. 하루 중 피로가 누적되는 오후에 부상율이 높다.

■스노보드 부상 예방법

- 1. 스노보드의 이상유무를 파악한다. 특히 바인딩을 주의하자!
2. 부츠는 발목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단단히 착용한다.
3. 리프트이용은 차를 지지자!
4. 자신에 맞는 코스에서 스키를 즐겨라.
5. 음주 및 무리하거나 난폭한 스키는 사고를 유발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6. 넘어질 때는 남을 붙잡지 말며 빨리 일어나야 한다.
7. 슬로프를 거슬러 오를 때는 가장자리를 이용한다.
8. 멈출 때는 언제나 코스 밖에서 멈춘다.
9. 보드가 빠졌을 때는 가장자리를 이용한다
10. 장비를 사용 후 물기 등 손질을 철저히 한다.

연말연시에도 인터넷 사기는 계속됩니다!

기고



류근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경감

'16년 충남·세종에서 발생한 인터넷 사기 범죄 발생 현황은 4,496건인데, 그중 80% 정도는 인터넷 직거래 사기이다. 인터넷 직거래 사기는 대부분 인터넷 중고 물품 시장을 통해서 발생하는데, 그 범죄의 대표적인 유형 두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는 인터넷 중고시장 게시판에 특정 물품을 저렴하게 판매할 것처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오는 소비자들에게 거짓말하여 물품 대금을 입금 받는 방법이고, 둘째는 인터넷 상에 특정 물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혀 놓은 사람에게 접근하여 그 사람이 원하는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받는 방법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의 공통점은 범인이 물품 판매자와 구매자를 속여 물건 대금을 선 입금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상대방으로부터 물품을 받기 전에 돈을 입금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안전결제시스템(Escrow)을 통해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안전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 거래를 고집한다면 단호하게 거래를 중단하여야 한다. 인터넷 사기 피해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안전결제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시길 당부드린다.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E-mail : d-mail@harmai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소사

Table with 3 columns: Year, Title, and Source/Author. Includes dates like 2009년, 2008년, 1999년 and various titles.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2006년 5월 17일 창간
젊은생각·비즈니스

Table with 4 columns: Category, Name, Phone Number, and Address. Includes contact info for Daedae Media.

The Real concert V.O.S

한남대학교 성지관
12. 30. (금) 20:00



大田투데이와 함께하는

Happy New Year



Restart 2017 Début 20th

12. 31. (토) 23:00

한남대학교 성지관

홍경민

HONG KYUNG MIN CONCERT



같은 생각·같은 신념

大田투데이와 함께하는

2016 송년 특집 콘서트

- # 본 할인권은 대전투데이에서 고객을 위해 제공되는 특별 상품입니다.
- # 본 공연의 티켓 예매는 전화예매만 가능합니다.
- # 본 할인권을 이용해서 좌석 예매를 한 경우에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공연문의 1661-5875

R석 15,000원